



2008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 전략

A Strategy to Attract the Headquarte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the
City of Seoul

한영주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 전략

A Strategy to Attract the Headquarte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the City of Seoul

2008

연구진

연구책임 한 영 주 • 창의시정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김 강 민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원

자문위원 서 승 진 • 한림국제대학원장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외활동이 확대되고, 여기에 UN사무총장을 배출함에 따라 국제기구 진출 등 국제사회에서 보다 비중 있는 역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유치는 국력의 상징으로 고용증대, 국제회의 개최 등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국제행사와 각종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이 동북아 중심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국제사회에서의 중심역할을 위해 서울의 경쟁력을 활용해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임.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국제기구의 공간적 분포와 효과를 조사하고, 국내·외 유치현황을 파악하여, 서울이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
-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계획을 연구하기 위해 2008~2010년에 국내에서 개최예정인 국제회의를 조사하고, 국제기구의 유치가능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토대로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실행계획을 제시함.
- 국제회의 조사는 시정(서울시 핵심사업), 순환(매년 주기적 개최여부), 중앙정부(중앙정부 주도 및 참가), 고유(국내적 특화도) 등 정책기준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함.

II. 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 서울시가 유치가능한 국제기구 분야는 IT산업, 기후변화, 환경, 관광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문화·예술, 디자인, 녹색도시 분야가 추가됨.
- IT 산업에 관련된 국제회의로 제13차 아시아·태평양설계자동화학술대회, 제22회 국제액정학술대회, 국제산업정보공학학술대회, ICANN연례회의가 선정됨. 한국의 IT산업은 이미 국제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은 상태로 IT산업과 밀접한 국제기구의 유치를 추진함.
- 기후변화에 관련한 국제회의로 C40기후리더십그룹국제회의가 선정됨. 기후변화는 국제적 관심 대상이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대응과제임. 특히 기후변화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별 담당국제기구가 필요하므로 서울은 동북아지역담당 기후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할 것을 제안함.
- 환경관련 국제회의로 제3차 아시아·태평양환경포럼이 선정됨. 환경관련 국제기구는 현재 포화상태로 이러한 기구를 새롭게 신설하여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결국 국제적 규모보다는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한정하여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광관련분야에는 제9차 관광진흥회의, 제3차 한·중·일관광장관회의, 아·태투자박람회국제컨퍼런스가 선정됨. 이 분야는 한·중·일(베이징-서울-도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추진되어야 국제관광지역으로 발전이 가능하며, 관련 국제기구는 지리적여건이 유리한 서울에 유치할 것을 제안함.
- 문화예술분야는 한류를 통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태로 이를 활용할 것과 동양적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를 한·중·일의 중심인 서울에 유치할 것을 제안함.

- 디자인 및 녹색도시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 현대도시의 기능을 고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서울의 매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함. 도시의 기능 및 도시환경은 국제도시들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이며, 급성장을 통해 성공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서울시를 지속적인 발전모델로 제시하여 관련 국제기구의 유치를 추진함.
- 실행계획으로는 국제연합대학(United Nations University) 훈련센터의 하나인 ‘GIST(Global Institute for Societal Transformation)’ 창설과 ‘동북아시아지식정보센터(Northeast Asia Knowledge & Information Center)’ 설립을 건의함.
 - GIST는 사회변화 및 전환을 주요핵심 과제로 정함. GIST 창설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작업을 추진할 TF팀 조직과 함께 국제연합대학 연구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창설방식을 제시함.
 - 동북아시아지식정보센터의 서울 설립은 동북아시아 지역 정체성에 관한 지식정보의 수신·발신역할을 수행함. 이 센터는 신설국제기구로서 한·중·일이 주도하는 동북아연구기관의 형태가 적당함. 세계석학들의 영입을 통해 이 기구의 인지도를 확립하여 설립초기에 전체적인 위상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연구센터와 교류를 통해 국내 연구 인력의 활용을 높이는 전략을 제시함.
- 이상의 국제기구 유치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적자원 양성, 국제도시화, 협력적 거버넌스, 국제기구의 효율적 관리체계 등의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목 차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및 체계	5
제2장 이론적 논의	9
제1절 국제기구의 의의	9
1. 국제기구의 정의	9
2. 국제기구의 종류	11
3. 국제기구의 분포	14
제2절 국제기구의 효과	22
1. 경제적 효과	22
2. 정치·외교적 효과	26
3. 사회·문화적 효과	27
제3장 국제기구 유치실태	31
제1절 해외 주요지역의 유치실태 및 시사점	31
1. 유럽 지역	31
2. 아시아지역	33
3. 시사점	35
제2절 우리나라 국제기구 유치실태 및 시사점	36
1. 중앙정부	36
2. 지방자치단체	44
3. 시사점	52

제4장 국제기구 유치전략	57
제1절 유치여건 개선	57
1. 세계 속에서의 서울의 위상	57
2. SWOT 분석	58
3. 유치여건의 개선 방향	63
제2절 도시 매력도 증대	64
1. 매력을 바탕으로 한 중심성 제고	67
2. 문화-교육 강화	69
3. 평화도시 이미지 확립	71
제3절 접근성 개선	74
1. 항공 인프라	74
2. 육상 인프라 활용	76
3. 해상 인프라 활용	78
제4절 인적자원 확보	79
1. 인재양성 프로그램	79
2. 국제기구 인력운영	83
3. 서울시 인재양성 방안	90
제5장 국제회의 활성화	95
제1절 국제회의 개최 현황 및 실태	95
1. 세계 국제회의 개최 현황	95
2. 아시아 국제회의 개최 현황	96
3. 국내 국제회의 개최 실태	98
제2절 우리나라 국제회의 개최계획 조사	100
1. 일반 특성별 현황	100
2. 정책 기준별 현황	103
3. 개최계획 조사결과	108
4. 국제회의 활성화를 통한 국제기구 유치	113

제3절 서울시 국제기구 주요활동	118
1. 국내활동	118
2. 국외활동	121
제6장 국제기구 유치계획	127
제1절 유엔대학(UNU) 훈련센터 유치	127
1. 유엔대학의 역할 및 기능	127
2. 유엔대학 훈련센터 유치 필요성 및 배경	128
3. GIST 유치 계획	129
제2절 동북아 지식정보센터 설립	130
1. 설립의 배경 및 필요성	130
2. 설립 전략 및 추진계획	132
제3절 제도적 시스템 구축	133
참고문헌	137
영문요약	143

표 목 차

<표 2-1> 유엔사무국 및 산하기구	11
<표 2-2> 유엔 전문 및 독립기구	12
<표 2-3> 정부간기구	13
<표 2-4> 아프리카 분포 현황	14
<표 2-5> 미주 분포 현황	15
<표 2-6> 아시아 분포 현황	16
<표 2-7> 대양주·태평양 분포 현황	16
<표 2-8> 유럽 분포 현황	17
<표 2-9> 국가별 NGO 및 IGO 현황	18
<표 2-10> IGO(정부간 국제기구) 주사무국 위치 국가 순위	20
<표 2-11> 국제기구 본부 순위(A Class)	21
<표 2-12>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23
<표 2-13>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25
<표 2-14>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소득유발효과	26
<표 3-1> 주한 국제기구	37
<표 3-2> 주한 국제기구 사무소	40
<표 4-1> UNESCO 자격요건	80
<표 4-2> OECD 자격요건	81
<표 4-3> 세계은행 그룹 자격요건	82
<표 4-4> ILO 자격요건	83
<표 4-5> 유엔직원 채용 경쟁시험 자격	84
<표 4-6> 유엔직원 채용 경쟁시험 자격(한국인 기준)	84
<표 5-1> 대륙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	96
<표 5-2> 아시아 주요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	97

<표 5-3> 국내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2006)	99
<표 5-4> 향후 국제회의의 지역별 개최 현황	100
<표 5-5> 국제회의의 국제기구 유무	101
<표 5-6> 국제회의의 참가국 규모	101
<표 5-7> 국제회의의 외국인 규모	102
<표 5-8> 국제회의의 공간적 범위	103
<표 5-9> 서울시 주요시정별 구분 현황	104
<표 5-10> 순환적 국제회의	105
<표 5-11> 국제기구 유무별 순환 횟수	106
<표 5-12> 참가국 규모별 국제기구 유무	107
<표 5-13> 국제회의의 외국인 규모별 순환 횟수	107
<표 5-14> 교차분석 조사결과	108
<표 5-15> 시정·순환국제회의의 개최계획	110
<표 5-16> 시정·중앙정부 개최계획	110
<표 5-17> 순환·고유 개최계획	111
<표 5-18> 순환·중앙정부 개최계획	112
<표 5-19> 시정·순환·고유 및 시정·순환·중앙정부 개최계획	112
<표 5-20> 개최계획 조사결과	113
<표 6-1> 국제연합대학 훈련센터 및 프로그램	129
<표 6-2> 동북아지식정보센터 설립 계획	133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체계	5
<그림 4-1>	유치여건 SWOT분석	63
<그림 4-2>	동북아 사회문화협력 단계별 추진도	66
<그림 4-3>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70
<그림 5-1>	아시아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건수 변화	97
<그림 5-2>	연도별 국제회의 개최건수 변화	98
<그림 5-3>	연도별 국내와 서울 국제회의 개최건수 변화 비교	9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외활동이 확대되고, 여기에 UN사무총장을 배출함에 따라 국제기구 진출 등 국제사회에서 보다 비중 있는 역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유치가 국력을 상징하며 부가적으로 고용증대, 국제회의 개최 등 경제적, 사회적, 대외적 이익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의 유치 효과는 대규모 국제기구단지인 뉴욕이나 제네바가 주요 국제기구의 소재지 혹은 국제 컨벤션도시로서 유발하는 직·간접의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국제기구가 위치한 도시를 국제회의 도시 등으로 지정 혹은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면, 그 파급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회의 산업이 21세기의 새로운 서비스산업으로 각광받을 것이란 전망에 비추어, 국제기구의 유치는 이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미 유치하여 운영하여 온 선진외국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각종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의 도시에는 대부분 국제기구가 소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는 뉴욕, 제네바, 비엔나, 파리, 런던 등을 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방콕, 마닐라, 도쿄 등이 일찍이 국제기구의 소재지가 되었고, 최근에는 독일의 본이 국제기구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인천광역시와 송도국제도시에 유엔 아·태정보통신교육훈련센터(UN ESCAP APCICT)를 유치·설립(2008. 6. 16)하였고,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UN ISDR) 산하 유엔도시방재연구센터의 동아시아 지역사무소를

2010년 설립하기로 2008년 3월 21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기도도 국제이주기구(IOM)산하의 이민정책연구원을 고양시에 설립하기 위해 2007년 11월 19일 MOU를 맺었다.

이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서울시는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아시아센터의 유치 등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서울이라는 명성과 그 기능에 비해서는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으로 볼 때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이 동북아 중심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국제적 중심역할을 위하여 서울의 경쟁력을 활용해 국제기구를 체계적으로 유치하는데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제기구의 공간적 분포와 효과를 조사하고, 국내·외 유치현황을 파악하며, 서울의 국제기구 유치여건을 분석하여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계획을 위해 2008~2010년 국내에서 개최예정인 국제회의를 조사하고, 국제기구 유치가능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토대로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실행계획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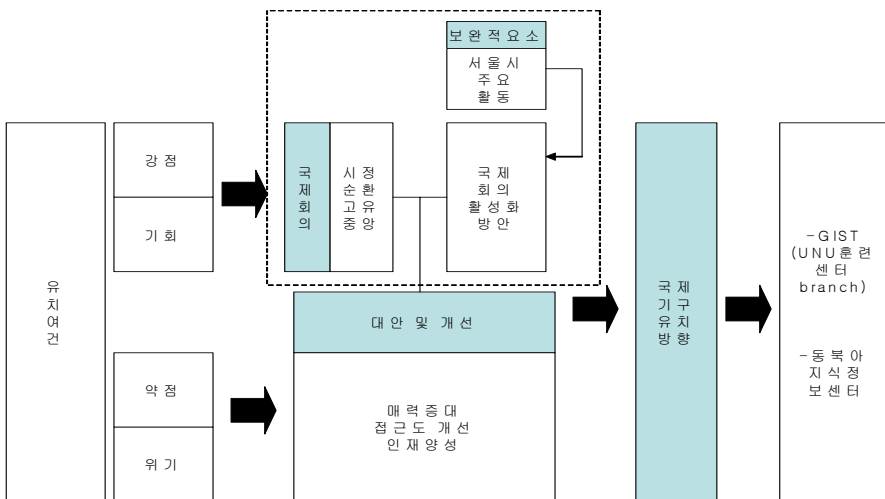
끝으로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실행계획을 단기·중장기 측면으로 권고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체계

이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연구, 면접조사, SWOT분석, 실증연구 등이 사용된다.

먼저 문헌연구 및 면접조사를 통해 국제기구의 이론적 부분과 국내·외 국제기구 유치 실태를 조사한다. 그리고 국제기구 유치여건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서울의 세계적 및 지역적 측면에서 위상을 정립하고 SWOT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실증연구방법에서는 국제기구 조사의 한 방편(proxy)으로 국내에서 개최예정인 국제회의 자료를 수집하여 일반특성 및 정책기준별 현황을 분석한다. 일반특성현황은 국제기구 유무, 참가국 규모, 외국인 참가 규모, 총 참가자 규모별로 조사한다. 정책기준별 현황은 실증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국제회의의 기준에 관련한 것으로 시정, 순환, 고유, 중앙정부의 4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시정은 서울시 주요정책에 관련한 내용을 말하며 하위카테고리를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 IT, 문화, 디자인, 기후, 관광, 환경에 대하여 조사한다. 순환은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그 횟수를 일정부분 나누어 조사하고, 고유는 국내적 특화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가 주최하거나 참여한 국제회의로 조사한다. 이상의 기준으로 교차분석한 결과로 국제기구의 유치분야를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체계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국제기구의 의의

제2절 국제기구의 효과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국제기구의 의의

1. 국제기구의 정의

국제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가 단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성된 단체이다. 당시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화 시대의 선봉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기능이나 역할 수행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이론적 측면에서 다르게 제시한 학자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비슷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공통적인 국제기구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조약에 입각하여 복수의 주권국가로 구성되어 일정한 목적 아래 국제법상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자체기관에 의하여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조직체이다(정정숙, 2005).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설립취지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데 있다(임천순외, 1999).

이상의 기본적 취지하에 국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주권국가(Nation-State)를 단위로 하며, 각국이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단체이다. 하지만 국가를 단위로 하지 않는 새로운 단체들, 특히 비정부기구(NGO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국제기구는 더 이상 국가 간의 협력단체라고만은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기구는 크게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로 나누어지며, 그 기능에 따라

범세계적 기구와 지역적 기구로 구분된다(서창록, 2008).

또한 일반적인 역할로서 정보교류, 정책형성, 갈등조정,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의 수행을 들 수 있다. 국제기구의 활동영역은 경제, 과학, 교육, 문화, 노동, 청소년, 여성, 빈곤과 소외계층, 통계, 미래지향 연구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임천순외, 1999). 이러한 다양한 역할들은 국제기구의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형성시켰다. 대표적으로 패권안정이론, 기능주의 이론, 그리고 게임이론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김관옥, 2004).

국제기구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제기구의 중요한 역할은 협력을 통해 모든 국가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국가 간의 협력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국제기구는 협력의 장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루어진 결정을 행동에 옮기는 행정적 기구까지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기구의 또 다른 역할은 정부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접근과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쟁상황에서 국제기구는 분쟁 당사국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는 외에도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서창록, 2008).

그러나 국제기구의 역할을 긍정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등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제기구가 많은 시간들로 축적되어진 문화와 다양한 성격을 지닌 국가들 간 의견조율을 기본으로 하는 반면, 그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아 이를 융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기구와 같은 융합의 자리를 통해 문제의 해결과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의 축적으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국제기구의 종류

국제기구의 종류는 유엔사무국, 유엔산하기구, 유엔전문기구, 유엔독립기구, 정부간기구 등 총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세분화하여 나타내면 <표 2-1>과 같다.

<표 2-1> 유엔사무국 및 산하기구

유엔사무국		유엔산하기구	
명칭	약자	명칭	약자
유엔사무국 평화유지활동국	(DPKO)	세계식량계획	(WFP)
유엔사무국 정부국	(DPA)	유엔환경계획	(UNEP)
유엔 제네바사무소	(UNOG)	유엔인간정주위원회	(UNCHS)
유엔사무국 감사실	(OIOS)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	(UNODC)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SCAP)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ICTY)
유엔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SCWA)	루완다국제형사재판소	(ICTR)
유엔아프리카 경제위원회	(ECA)	유엔연구기금	(UNFPA)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ECLAC)	유엔대학	(UNU)
유엔 이라크프로그램사무소	(OIP)	국제공무원위원회	(ICSC)
유엔사무국 경제사회국	(DESA)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유엔사무국 공보실	(DPI)	유엔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	(UNCCD)
유엔사무국 관리국	(DM)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유엔사무국 인도적문제조정실	(OCHA)	유엔합동감사단	(JIU)
유엔 나이로비사무소	(UNON)	유엔아동기금	(UNICEF)
유엔사무국 총회회의운영국	(DGACM)	유엔개발계획	(UNDP)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	(UNRWA)
유엔유럽경제위원회	(ECE)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	(UNFCCC)
유엔사무국 군축국	(DDA)	국제무역센터	(ITC)
유엔사무국 법률실	(OLA)	UN System Staff College	(UNSSC)
유엔 비엔나사무소	(UNOV)	유엔직원합동연금기금	(UNJSPF)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	유엔자원봉사단	(UNV)
최빈·내륙국 고위대표실	(OHRLLS)	유엔사업지원사무소	(UNOPS)
Field Missions	(by DPKO)		
유엔사무국 안보국	(DSS)		

자료 :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유엔사무국은 25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엔산하기구는 22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무국은 기능별 성격에 따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곳에는 전 세계 8,700명의 전문가와 사무원들이 국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활동하고 있다. 사무국은 직원들이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하지만, 그들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회원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대변한다. 유엔산하기구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기관인 동시에 지역적이기보다는 국제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 유엔이라는 총체적 집합체와는 별개의 현장과 회원, 예산과 사무국을 가지고 있다. 각 기구들의 대표는 유엔의 사무총장과 같은 외교적 지위를 가진다.

<표 2-2> 유엔 전문 및 독립기구

분류	명칭	약자
전문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노동기구	(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세계보건기구	(WHO)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국제해사기구	(IMO)
	세계기상기구	(WMO)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만국우편연합	(UPU)
	세계은행	(World Bank)
	세계관광기구	(WTO)
국제무역센터	(ITC)	
독립기구	세계무역기구	(WTO)
	국제원자력기구	(IAEA)

자료 :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표 2-3> 정부간기구

명칭	약자
포괄적핵심협금지조약기구	(CTBT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아시아개발은행	(ADB)
국제열대목재기구	(ITTO)
Sierra Leone 특별재판소	
국제이주기구	(IOM)
국제형사재판소	(ICC)
국제수역기구	(OIE)
바세나르체제	(WA)
국제문화재 보존복구연구센터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자료 :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또한 유엔전문기구가 16개, 독립기구는 2개, 정부간기구는 13개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 비정부기구(NGO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또는 INGO : International Non-Government Organization)도 최근 활발한 활동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기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부과된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구기관일 것, 둘째, 정당성을 갖춘 조직과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을 것, 셋째, 활동의 목표와 체계 그리고 방법 등을 명시한 기본 발기문을 갖출 것, 넷째, 광범위한 대표성을 띤 자문협의기관일 것, 다섯째, 지속적 행정업무와 연구 그리고 정보기능을 수행할 영구 사무소를 갖출 것 등이다(서창록, 2008).

3. 국제기구의 분포

1) 국제기구 사무국 분포

국제기구 사무국은 전세계 5,567개 지역에 2만 1,624개가 분포해 있다.

또한 국제기구는 국제회의별로 A, B, C의 3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A등급은 국제회의 개최 국제단체, B등급은 국제회의 개최가능성이 있는 국제단체, C등급은 비활동 포함 기타 기구 및 단체를 말한다. 국제기구 분포지역은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 유럽으로 구분하였다.

(1) 아프리카지역

먼저 아프리카지역을 살펴보면, 케냐(Kenya)가 258개로 가장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190개, 이집트(Egypt) 149개, 세네갈(Senegal) 132개, 코트디부아르(Cote d' Ivoire) 79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A등급을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는 국가는 이집트(Egypt) 76개로 나타났으며, B등급은 케냐(Kenya, 132개), C등급은 남아프리카공화국(75개)로 나타났다.

<표 2-4> 아프리카 분포 현황

(단위 : 개)

국 가 명	A Class	B Class	C Class	합 계
이집트(Egypt)	76	54	19	149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66	49	75	190
케냐(Kenya)	65	132	61	258
세네갈(Senegal)	35	66	31	132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	32	36	11	79

자료 : 한국관광공사(<http://convention.visitkorea.or.kr>)

(2) 미주 지역

미주지역은 미국(USA), 캐나다(Canada), 아르헨티나(Argentina), 브라질(Brasil), 멕시코(Mexico)가 대표적이다. 이 중 국제기구를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USA, 4,221개)이다. 캐나다(Canada)가 671개로 그 뒤를 잇고 있지만, 1위 미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국가인 아르헨티나(Argentina) 182개, 브라질(Brasil) 169개, 멕시코(Mexico) 180개로 상위국가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A, B, C등급 미국(USA)이 다수 유치하고 있다.

<표 2-5> 미주 분포 현황

(단위 : 개)

국 가 명	A Class	B Class	C Class	합 계
미국(USA)	795	1,237	2,189	4,221
캐나다(Canada)	180	169	322	671
아르헨티나(Argentina)	103	46	33	182
브라질(Brasil)	83	54	32	169
멕시코(Mexico)	75	68	37	180

자료 : 한국관광공사(<http://convention.visitkorea.or.kr>)

(3) 아시아지역

아시아지역의 국제기구 분포지역은 인도(India), 싱가포르(Singapore), 필리핀(Philippine), 말레이시아(Malaysia), 한국(Korea)등이 대표적이다. 일본(Japan)이 382개로 가장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으며, 인도(India)가 299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싱가포르(Singapore), 필리핀(Philippine), 말레이시아(Malaysia)가 국제기구를 각각 124개, 191개, 117개를 유치하고 있으며, 한국은 74개를 유치하여 태국, 홍콩보다 적다. 등급별로는 일본이 A등급 128개, B등급 106개, C등급 148개로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다.

<표 2-6> 아시아 분포 현황

(단위 : 개)

국 가 명	A Class	B Class	C Class	합 계
일본(Japan)	128	106	148	382
인도(India)	80	100	119	299
싱가포르(Singapore)	66	44	14	124
필리핀(Philippine)	55	95	41	191
말레이시아(Malaysia)	45	53	19	117
한국(Korea)	33	22	19	74

※ 태국, 홍콩 등이 한국보다 상위에 위치
 자료 : 한국관광공사(<http://convention.visitkorea.or.kr>)

(4) 대양주 · 태평양 지역

대양주 · 태평양지역은 호주(Australia), 뉴질랜드(New Zealand), 피지(Fiji), 사모아(Samoa), 괌(Guam)에 국제기구가 분포되어 있다. 호주(Australia)가 504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뉴질랜드(New Zealand) 68개, 피지(Fiji) 63개, 사모아(Samoa) 11개, 괌(Guam) 5개의 순이다. 등급별로도 호주(Australia)가 A등급, B등급, C등급 각각 192개, 119개, 193개로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다.

<표 2-7> 대양주 · 태평양 분포 현황

(단위 : 개)

국 가 명	A Class	B Class	C Class	합 계
호주(Australia)	192	119	193	504
뉴질랜드(New Zealand)	25	14	29	68
피지 (Fiji)	23	25	15	63
사모아(Samoa)	4	7	-	11
괌(Guam)	3	2	-	5

자료 : 한국관광공사(<http://convention.visitkorea.or.kr>)

(5) 유럽지역

유럽지역은 벨기에(Belgium), 영국(United Kingdom),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네덜란드(Netherlands)등에 국제기구가 분포되어 있다. 벨기에(Belgium)가 2,590개로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으며, 프랑스(France) 2,528개, 영국(United Kingdom) 2,401개, 독일(Germany) 1,186개, 네덜란드(Netherlands) 1,039개의 순이다. 이밖에 이탈리아와 스위스도 각각 1,229개, 1,096개의 국제기구 사무국을 유치하고 있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A등급과 B등급은 벨기에(Belgium)가 920, 1,089개로 가장 많고, C등급은 영국(United Kingdom)이 750개로 가장 많다.

<표 2-8> 유럽 분포 현황

(단위 : 개)

국 가 명	A Class	B Class	C Class	합 계
벨기에(Belgium)	920	1,089	581	2,590
영국(United Kingdom)	850	801	750	2,401
프랑스(France)	776	733	1,019	2,528
독일(Germany)	461	332	393	1,186
뉴질랜드(Netherlands)	407	341	291	1,039

※ 스위스(1,096개), 이탈리아(1,229개)가 상위권에 있음
 자료 : 한국관광공사(<http://convention.visitkorea.or.kr>)

전체적으로 유럽지역과 미국에 국제기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아시아 및 대양주·대서양 지역은 504개인 호주를 제외하면 모두 500개 이하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어, 유럽 및 미국보다 현저하게 적다.

2) 국제기구 본부 분포

국제기구 본부는 NGO 및 IGO로 구성되어 있으며, NGO 1만 9,322개 등 총 2만 1,624개가 분포하여 있다.

<표 2-9> 국가별 NGO 및 IGO 현황

(단위 : 개)

구 분	국 가 명	본 부 수(개)	비 고
아프리카	케냐(Kenya)	174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142	
	세네갈(Senegal)	93	
	나이지리아(Nigeria)	63	
	짐바브웨(Zimbabwe)	57	
미 주	미국(USA)	3,646	
	캐나다(Canada)	545	
	멕시코(Mexico)	127	
	아르헨티나(Argentina)	126	
	브라질(Brazil)	103	
아 시 아	일본(Japan)	270	말레이시아 87 싱가포르 85 홍콩 63 사우디 68 한국 51
	인도(India)	213	
	태국(Thailand)	133	
	필리핀(Philippine)	127	
	이스라엘(Israel)	93	
대 양 주 태 평 양	호주(Australia)	393	
	뉴질랜드(New Zealand)	50	
	피지(Fiji)	47	
	사모아(Samoa)	5	
	솔로몬제도(Solomon Islands)	5	
유 럽	벨기에(Belgium)	2,194	네덜란드 868 스위스 843
	프랑스(France)	2,079	
	영국(United Kingdom)	2,048	
	이탈리아(Italy)	1,072	
	독일(Germany)	966	

자료 : 한국관광공사(<http://convention.visitkorea.or.kr>)

국제기구 본부 분포는 <표 2-9>를 보면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유럽지역이 사무국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하고 있고, 미국에도 3,646개가 있는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 본부가 유럽 및 미주지역에 유치되어 있

다. 그 외 아시아, 대양주·태평양, 아프리카지역은 유럽 및 미주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국제기구 본부 유치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주지역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낮은 유치현황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지역에서는 케냐가 174개로 가장 많은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42개로 그 다음이다. 미주지역에서는 미국이 3,646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미국과 545개인 캐나다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200개 미만의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이 270개로 가장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200개를 넘지 못하며, 이중 태국과 필리핀 이외의 국가들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대양주·태평양 지역 또한 393개인 호주를 제외하고 뉴질랜드 50개, 피지 47개, 사모아 5개, 솔로몬섬 5개의 낮은 유치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지역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800개 이상의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하고 있다. 벨기에가 2,194개로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으며, 프랑스 2,079개, 영국 2,048개, 이탈리아 1,072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800개 이상의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하는 국가가 많으므로, 지역별로 보면 유럽지역이 가장 많은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하고 있는 셈이다.

3) 국제기구 분포별 순위

정부간기구(IGO)의 분포 순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은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간기구가 위치한 전체 141개국 중 공동 77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표 2-10> IGO(정부간국제기구) 주사무국 위치 국가 순위

(단위 : 개)

순위	국 가 명	사무국수	순위	국 가 명	사무국수
1	프랑스(France)	218	27	베네수엘라(Venezuela) 등 2국	18
2	벨기에(Belgium)	217	29	모로코(Morocco) 등 2국	17
3	미국(USA)	205	31	우루과이(Uruguay) 등 2국	16
4	스위스(Switzerland)	151	33	말레이시아(Malaysia) 등 2국	15
5	이탈리아(Italy)	107	35	인도(India) 등 4국	14
6	덴마크(Denmark)	86	39	오스트렐리아(Australia) 등 2국	13
7	영국(United Kingdom)	75	41	피지(Fiji) 등 5국	12
8	오스트리아(Austria)	51	46	바레인(Bahrain) 등 7국	11
9	태국(Thailand)	47	53	파키스탄(Pakistan) 등 4국	10
10	케냐(Kenya)	38	57	브라질(Brasil) 등 6국	9
11	독일(Germany)	37	63	콜롬비아(Colombia) 등 3국	8
12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35	66	방글라데시(Bangladesh) 등 6국	7
13	인도네시아(Indonesia)	31	73	온두라스(Honduras) 등 4국	6
14	뉴질랜드(Netherlands)	31	77	한국 등 5국	5
15	이집트(Ethiopia)	27	82	아일랜드(Ireland) 등 9국	4
16	칠레(Chile) 등 3개국	26	91	아르헨티나(Argentina) 등 12국	3
19	핀란드(Finland) 등 2개국	25	103	알제리(Algeria) 등 19국	2
21	캐나다(Canada) 등 2개국	23	122	중국(China) 등 20개국	1
23	스웨덴(Sweden)	22			
24	괌(Guyana)	21			
25	노르웨이(Norway)	20			
26	러시아(Russia)	19			

자료 : 한국관광공사(<http://convention.visitkorea.or.kr>)

정부간기구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본부의 위치도 유럽 및 미국이 상위권에 속해 있으며 캐나다, 일본, 멕시코, 인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는 22개로 전체 60개국 중 38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간순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2-11> 국제기구 본부 순위(A Class)

(단위 : 개)

순위	국 가 명	본부수	순위	국 가 명	본부수
1	벨기에(Belgium)	752	31	홍콩(Hong Kong)	26
2	영국(United Kingdom)	698	32	칠레(Chile)	25
3	프랑스(France)	580	33	태국(Thailand)	25
4	미국(USA)	574	34	코르타리카(Costa Rica)	24
5	독일(Germany)	341	35	헝가리(Hungary)	24
6	뉴질랜드(Netherlands)	320	36	룩셈부르크(Luxembourg)	23
7	스위스(Switzerland)	284	37	콜롬비아(Colombia)	22
8	스웨덴(Sweden)	159	38	한국(Korea)	22
9	이탈리아(Italy)	149	39	페루(Peru)	22
10	캐나다(Canada)	136	40	러시아(Russia)	22
11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125	41	세네갈(Senegal)	22
12	덴마크(Denmark)	115	42	그리스(Greece)	21
13	오스트리아(Austria)	100	43	폴란드(Poland)	20
14	스페인(Spain)	92	44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20
15	노르웨이(Norway)	80	45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	19
16	핀란드(Finland)	73	46	이스라엘(Israel)	19
17	일본(Japan)	71	47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Tobago)	18
18	아르헨티나(Argentina)	67	48	뉴질랜드(New Zealand)	17
19	멕시코(Mexico)	52	49	포르투갈(Portugal)	17
20	이집트(Egypt)	51	50	튀니지(Tunisia)	17
21	브라질(Brazil)	47	51	감(Ghana)	16
22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45	52	나이지리아(Nigeria)	16
23	싱가포르(Singapore)	44	53	터키(Turkey)	16
24	인도(India)	41	54	피지(Fiji)	15
25	케냐(Kenya)	34	55	모로코(Morocco)	15
26	말레이시아(Malaysia)	34	56	에콰도르(Ecuador)	14
27	필리핀(Philippine)	31	57	바베이도스(Barbados)	13
28	우루과이(Uruguay)	29	58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12
29	베네수엘라(Venezuela)	29	59	체코공화국(Czech Republic)	12
30	아일랜드(Ireland)	27	60	이라크(Iraq)	12

자료 : 한국관광공사(<http://convention.visitkorea.or.kr>)

제2절 국제기구의 효과

국제기구를 유치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으며, 국제기구 진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치·외교적 측면에 있어서도 국제기구 업무와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은 각각 자국에서 사회의 여론을 선도하는 층이므로 민간외교 차원의 국가 이미지 제고와 대외친선효과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국제적 영향력 확대로 연결되어 안보측면에서 무력 상황에 대한 억제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2004).

이 밖에도 지역 사회 문화적 측면으로 도시문화 및 시스템이 국제화되어 보다 넓은 범위의 도시기능이 활성화되며, 광범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당연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시너지 효과로 많은 관광상품의 개발 촉진과 새로운 문화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

1. 경제적 효과

국제회의 유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가와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제회의 관계자들이 각종 정보와 지식을 직접 교환하는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선진정보를 수용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 등 산업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국제기구 공무원 및 가족이 상주하게 됨에 따라 그들이 소비, 지출하는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국제회의, 워크숍, 컨벤션 등의 개최로 전 세계로부터 많은 방문객이 내방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호텔 및 컨벤션 산업, 통·번역, 관광, 인쇄업 등 각종 관련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대규모 국제기구단지인 뉴욕이나 제네바가 주요 국제기구의 소재지 혹은 국

제 컨벤션도시로서 유발하는 직·간접의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상상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국제기구가 있는 도시를 국제회의 도시 등으로 지정 혹은 개발하여 ‘시너지’효과를 노린다면, 그 파급효과는 더욱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회의 산업이 21세기의 새로운 서비스산업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비추어, 국제기구의 소재는 이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1) 생산유발 효과

2007년 한해 동안 유치된 국제회의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유발시킨 총생산과 급효과는 401,090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직접효과는 전체 효과의 64.9%인 259,810백만원에 달했고, 간접효과는 35.1%인 141,280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제회의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 중 숙박업 부문이 전체 생산과급 효과 중 가장 많은 18.1%로 72,421백만원의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점부문이 11.6%인 46,710백만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반면, 차량임대업(3.2%), 여행사업(2.4%), 오락·유흥업(2.1%), 문화·공연(1.8%), 운동·경기(1.7%) 등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다소 낮은 효과를 나타냈다.

<표 2-12>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구 분	생산유발효과(백만원)	비율(%)
숙박업	72,421	18.1
음식점업	46,710	11.6
차량임대업	12,761	3.2
여행사업	9,445	2.4
문화·공연	7,353	1.8
운동·경기	6,710	1.7
오락·유흥업	8,246	2.1
소매업	40,819	10.2
기타	55,345	13.8
직접소계	259,810	64.9
간접소계	141,280	35.1
총계	401,090	100.0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7)

이처럼 여행 사업, 문화·공연, 운동·경기, 오락·유흥업 부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해당분야에 대한 지출 규모가 미약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숙박, 식음료, 소매업에 머물러 있는 현재의 참가자 소비형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약한 여러분야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최근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및 예술 디자인과 연계하면 국제회의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고용유발효과

2007년 한해 동안 개최된 국제회의들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유발시킨 고용파급효과는 약 831만 7,360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직접효과는 전체의 64.4%에 해당하는 약 536만 5,528명이고, 간접효과는 35.6%인 약 295만 1,83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숙박업이 전체의 29.1%인 242만 2,182명으로 가장 높은 고용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소매업이 24.9%인 207만 2,605명, 오락유흥업이 3.8%인 31만 7,256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낮은 고용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는 문화·공연이 0.9%, 차량임대업이 0.9%, 여행사업이 1.2%, 운동·경기가 1.7%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공연의 경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이므로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표 2-13>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구분	고용유발효과(명)	비율(%)
숙박업	2,422,182	29.1
음식점업	154,645	1.9
차량임대업	76,754	0.9
여행사업	102,197	1.2
문화·공연	74,430	0.9
운동·경기	145,456	1.7
오락·유흥업	317,256	3.8
소매업	2,072,605	24.9
기타	-	-
직접소계	5,365,528	64.4
간접소계	2,951,831	35.6
총계	8,317,360	100.0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7)

3) 소득유발효과

2007년 한해 동안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소득유발효과는 총 78,646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중 직접효과는 71.8%에 달하며, 간접효과는 28.3%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숙박업이 30.5%로 소득유발효과가 가장 컸으며, 음식점업이 13.6%, 소매업 12.6%의 순이다.

낮은 효과를 나타내는 분야로는 차량임대업이 2.1%, 운동·경기가 2.2%, 문화·공연이 2.8%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4>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소득유발효과

구 분	소득유발효과(백만원)	비율(%)
숙박업	24,004	30.5
음식점업	10,695	13.6
차량임대업	1,655	2.1
여행사업	3,469	4.4
문화·공연	2,185	2.8
운동·경기	1,708	2.2
오락·유흥업	2,469	3.1
소매업	9,869	12.6
기타	-	-
직접소계	56,504	71.8
간접소계	22,142	28.2
총계	78,646	100.0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7)

2. 정치·외교적 효과

국제기구는 국가적 상징 및 국제적 영향력의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소재는 그 자체가 국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의 도시는 대부분 국제기구의 소재지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는 뉴욕, 제네바, 비엔나, 파리, 런던 등이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방콕, 마닐라, 도쿄 등이 일찍이 국제기구의 소재지가 되었고, 최근에는 독일의 본이 국제기구유치에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이 그동안 경제력 및 군사력을 배양하여 유례없는 국력성장을 하였지만 외교력 배양에 소홀하였고, 강대국 위주의 쌍무외교, 냉전시대의 대결외교에 익숙하였다. 탈냉전 시대에 인간의 안전에 관한 다양한 전 지구적 이슈들, 가령 인권, 환경, 빈곤, 난민, 에이즈 등의 문제들은 국제사회의 핵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역은 바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소위 ‘연성국력(soft power)’을 배양할 수 있는 분야이다.

또한 국제기구의 유치는 한국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중간 교량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이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주요이슈에서 역할을 강화하면, 국력과 외교력의 신장되어 전반적인 국가이익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3. 사회·문화적 효과

국제기구는 인력 진출 등으로 인한 고용증대와 국제전문인력 양성의 기회가 된다.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활동이 증대함에 따라 국제기구로의 인력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유엔진출 신드롬’이 나타날 정도로 국제공무원은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가 되었다.

국내에 유치되는 국제기구의 경우, 국가별 혹은 지역별 배분의 제약을 받는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기구소재 국민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에 소재하는 국제기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기문효과’ 등으로 가속화된 국제기구 취업노력과 취업기회가 증가하고,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제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제기구는 국민들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특히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하게 된다. 국제기구는 그 업무의 성격과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종, 종교, 국적의 인사들이 근무 혹은 방문하게 되어 있다. 상설 국제기구는 시민 혹은 국민 전체의 국제기구 자체에 대한 관심과 국제기구가 다루는 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시민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기구는 각종 이슈를 통하여 국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특히 NGO 등 시민사회와도 제휴나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국내·외적으로 그 활동을 통해 국가이익을 초월하여 세계이익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제3장 국제기구의 유치실태

제1절 해외 주요지역의 유치실태 및 시사점

제2절 우리나라 국제기구 유치실태 및 시사점

제3장 국제기구 유치실태

제1절 해외 주요지역의 유치실태 및 시사점

1. 유럽 지역

1) 제네바

제네바는 1차대전 후 국제연맹의 소재지로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2차대전 직후 유엔 창설로 제네바사무소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제네바 전체로는 국제기구 소재지로서의 기능이 확대되어 NGO 등 국제기구가 400여개나 자리잡고 있다.

제네바는 자족이 가능하고 평화로운 지역적 여건과 오랜 영세국가의 도시로서 그 특성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 관광국의 매력을 나타내면서 서부유럽과의 교통 요충지로서의 근접성을 잘 이용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개의 국제기구가 있어 상호 시너지 효과와 영어, 불어 등 유엔 공용어 상용 국가로서의 친근성도 장점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 비엔나

비엔나는 1979년 다뉴브 강 북단에 신도시인 'UNO City'에 국제회의센터(VIC)를 설립하고 국제기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제네바 이외 최대의 국제기구 본부로 현재 유엔비엔나사무소인 UNOV 및 IAEA, UNIDO, OPEC 등 국제기구 16개가 있으며 국제기구직원 약 5천명 등 상주직원 약 1만 5천명과 가족 등 약 4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유엔 마약위원회회의 등 6개 위원회의회의 장소가 있으며, 동유럽과 인접한 근접성과 교통의 요충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 도시는 국제예술도시로서의 역사성, 도시의 예술성, 문화적 친근성 등의 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어 이외에 영어 등을 공용화, 상용화하여 국제적인 생활수준을 보이고 있다.

3) 본

독일정부는 대 유엔정책 강화, 국가위상 제고, 국제기구 유치, 상임이사국 진출 등을 위한 정책의지에 의해 국제기구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주도면밀한 노력의 결과,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 중 가장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본(Bonn)은 독일 통일 후 베를린으로 수도가 이전함에 따라 구 서독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구 수도의 기능과 인프라 활용 방편으로 국제기구도시로 추진되었다. 구 연방의회의 건물을 활용하여, 5천5백만유로를 들여 재정비하여 2006년 7월 UN에 기부하였다. 1996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 1994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을 유치하고, 1996년 유엔자원봉사단(UNV)을 제네바에서 이전 유치하는 등 주로 환경, 보건 분야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1994년 베를린-본 법안에 의거 국제기구 및 국제도시로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12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10여년간 약 6,500여명의 유엔직원이 상주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본(Bonn)이외에도 독일은 함부르크(Hanburd)에 1951년 UNESCE Institute for Education, 1996년 국제해양재판소(ITLS)를 유치하였다.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 세계은행지부, 베를린에는 UNHCR 지부, ILO 연락사무소, WEP 연락사무소를 각각 유치하였다.

4) 부타페스트

부타페스트는 2008년 제네바에 있던 EU의 기술연구소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많은 국제기구가 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네바에 많은 국

제기구가 집결하고 있다. 이중 일부 국제기구는 장기간 유치되고 있어 낙후된 환경 및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EU기술연구소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전을 결정하고 경합을 벌이던 몇몇 도시를 제치고 부다페스트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추후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아시아지역

1) 도쿄

도쿄는 일본정부의 추진으로 유엔대학교(UNU)를 유치하였는데, 일본이 부지 및 시설물을 건축해 증여하고, 운영비의 70%를 부담하고 있다. 일본의 깨끗한 환경, 수도 도쿄 위상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영어 미사용, 교통혼잡, 비싼 물가 등의 단점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으로서의 주기능, 기타 관련 국제기구와의 연계도 부족하여 태국 등에 비해 전반적으로 파급효과는 미미하다.

2) 방콕

태국에 유치된 국제기구는 주로 아·태지역, 동남아시아 중심의 지역권 국제기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제연합개발프로그램(UNDP)처럼 국제기구가 국가별로 파견시킨 정부간기구도 있다.

태국은 오래 전부터 국익의 중심을 정치와 외교에 초점을 두고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지속시켜온 대표적인 국가이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중심지에 있으면서 오랜 세월동안 동서 해상교역로의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무역선과 상선들이 집결되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정학적 이점이 높은 국가이다. 문화적으로도 북쪽의 중국문화권, 서쪽의 인도 및 이슬람 문화권, 남쪽의 말레이시아 문화권이 혼재해 있으며 대륙의 동서를 중간에서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요충지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한국

교육개발원, 2000).

특히 태국의 수도인 방콕은 아시아의 저명도시이며 동남아시아의 중심도시로 인정됐으며, 아시아 국가 중 최대의 UN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있다. UN센터를 중심으로 UN아시아태평양위원회(ESCAP) 및 아시아본부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UNAIDS, UNFPA, UNHCR 등 21개의 유엔기구 아시아 태평양지부를 유치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사무소(UNESCO-PROAP)가 소재되어 있다.

동남아 및 아시아의 교통 요충지, 국제 관광도시, 저렴한 물가 등이 장점인 반면, 시내교통문제, 열악한 시설 및 정보인프라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태국 소재 정부간 국제기구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인권 등 그 범주가 매우 넓어 어느 특정 분야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중 본부 사무처를 방콕에 두고 있는 기구가 6개이며, 11개는 지역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9개가 국가과건 국제기구이다.

방콕에 있는 6개의 본부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관장하는 세계적인 국제기구는 하나도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 국제업무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이행되었고 따라서 영향력이 높은 세계적인 국제기구의 아시아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을 감안해 볼 때, 태국 내 국제기구의 숫자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다.

태국에 위치한 여러 국제기구 가운데 유네스코 지역사무국은 지역 내에서 영향력이 매우 높은 기구이다. 주로 기초교육, 문화교육, 문화유산사업을 주로 하는 이 지역사무국은 태국의 국내학자와 정책담당자에게 세계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태국의 교육, 문화 및 사회정책 개발 및 선진화에 큰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태국은 자신들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아시아 인접국가에 그들의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전수시키는 해외보급형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네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만인을 위한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등에서 태국학자의 참여는 괄

목할 만한 수준이다. 다양한 조사방법, 현지조사, 회의 등을 통해 교육정책의 입안, 커리큘럼의 편성, 교육 평가방법, 교사양성 프로그램, 교육공학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문, 평가 등을 책임지고 있다.

국제기구와 전문 학술기관과의 연계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이러한 파트너십은 이론과 실재를 접목시키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태국의 학술기관은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많은 국제사업에 참가함으로써 정책이행에 따른 오류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혜택을 보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3. 시사점

외국의 국제기구는 초창기 분배적 방식과 최근의 경쟁을 통해 유치된 사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초창기 분배방식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한 제네바 및 비엔나의 전략을 유치경쟁전략이 필요한 서울시가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결국 두 지역의 유치전략보다는 국제기구 관리적 측면에 비중을 두어 살펴봐야 하며, 국제기구 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국제기구 이전결정 시 서울시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는데 의미가 있다. 제네바에 있던 국제기구를 이전, 유치해온 부다페스트의 사례가 국제기구의 동향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의 경우 독일통일 이후 구 서독의 수도로서의 역할이 상실되면서 기존의 인프라 및 도시기능을 활용하여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금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으로 기존의 공공기관으로 이용되었던 건물이나 부지를 활용하여 국제기구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독일의 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상호관계와 역할을 통해 국제기구유치를 위한 활동과 기존도시기능 활용전략을 중심으로 방안을 살펴본다면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전략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시아지역에서는 국제기구의 활동이 미·유럽지역에 비하여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도쿄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UN대학교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는 일본의 국가적 위상을 볼 때 국제기구의 활동은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비싼 물가, 교통혼잡, 영어 미사용이라는 점에서 국제기구 소재지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조건 뿐만 아니라 인프라, 경제적여건, 편리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태국의 경우 비록 개발도상국가로 정보인프라 및 교통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관광국가라는 이미지와 낮은 물가 및 국제교통의 중심지라는 점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게 만들었다. 도시내 인프라의 부족이라는 단점을 낮은 물가라는 장점으로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국내 기관을 연계 활용하였다는 점은 국제기구유치의 궁극적인 목적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2절 우리나라 국제기구 유치실태 및 시사점

1. 중앙정부

중앙정부에서 유치한 정부간기구(IGO)는 총 5개로 국제기구, 국제기구 산하기구, 국제기구 협력관으로 나누어진다.

국제기구로는 국제백신연구(IVI-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UN기념공원(UNMCK-UN Memorial Cemetery in Korea)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 산하기구로는 아·태정보통신기술통신교육훈련센터(APCICT-Asian and Pacific Training Centr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국제기구 협력기관으로는 유엔거버넌스센터(UNGC-United Nations Governance Centre), 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이 유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제기구주한사무소로는 서울국제금융공사(IFC), 국제통화기금(IMF),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HCHR), 유엔개발공업기구 서울투자진흥사무소(UNIDO-ITPO), 북서태평양보존계획(UNEP-NOWPAP), 국제이주기구(IOM)이 운영되고 있다.

<표 3-1> 주한 국제기구

구분	국제기구	지역	설립연도
국제기구	국제백신연구소(IVI)	서울	1997
	UN기념공원(UNMCK)	부산	1951
국제기구 산하기구	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훈련센터(APCICT)	인천	2006
국제기구협력관	유엔거버넌스센터(UNGC)	서울	2006
	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	서울	2000

자료 :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1) 국제기구

(1) 국제백신연구소

국제백신연구소는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를 유치하기 위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경합을 벌인 결과 1994년 유치국가로 선정되었다. 이후 국제백신연구소는 1997년 10월 독립적인 비영리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하였다. 이 연구소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 2개 중 하나로 2008년 2월 현재 40개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설립 협정에 서명, 회원국(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백신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장내 감염·호흡기 감염, 홍역 등의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사망(5세 미만 어린이 연간 700만명)과 장애를 줄이는데 있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최근 백신들은 이러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놀라운 효력을 갖고 있다. 국제백신연구소의 사명은 더욱 새롭고 개선된 백신을 개발하고, 이를 개발도상

국의 공중보건 프로그램에 하루 속히 도입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백신연구소는 개도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백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전념하는 세계유일의 국제 연구기관이다. 한국 정부는 이 연구소의 유치국으로서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 1억 5000만달러 가치에 달하는 본부건물을 2003년 완공하여, 2004년 10월 공식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연구소의 연간 운영비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2008년 3월 현재 20개국 출신 14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호주, 일본, 스웨덴 등 각국 정부와 빌 게이츠 재단, 록펠러 재단 등의 국제 자선단체, 여러 기업과 개인들이 이 연구소를 지원하고 있다.

(2) UN기념공원

UN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로 한국전쟁 발발 이듬해인 1951년 1월 유엔군 사령부가 전사자 매장을 위하여 조성하였으며, 같은해 4월 묘지가 완공되었다. 1974년 2월 16일 이 공원의 관리업무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에서 11개국으로 구성된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UNMCK)로 위임되어 지금까지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2) 국제산하기구

아·태정보통신기술통신교육훈련센터(APCICT)는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산하기구로 인천에 입지하고 있다. 국내 최초 IT분야 지역 교육센터의 입주로 우리나라는 IT 리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APCICT는 인천송도자유경제지구(IFEZ) 내 경제자유구역청 3층에 위치하며 역내 정보화 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및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회원국 ICT(Information-Communication-Technology)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자문, 교육 콘텐츠 개발과 전문화를 위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진행,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3) 국제기구협력기관

(1) 유엔거버넌스센터(UNGC)

유엔거버넌스센터는 전 세계에 굿 거버넌스를 확산 보급하기 위한 기관이다. 즉,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거버넌스와 공공정책을 개선하는 UN 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5년 5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6회 글로벌포럼의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에서 UN 회원국의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중심기구로서 UNGC 설립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년 UN과 한국정부가 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에 UNGC가 개원하였다.

(2)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유엔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2000년을 ‘세계평화의 문화 해’로, 2001년을 ‘문명간 대화의 해’로 선포하였다. 이에 발맞춰 유네스코 본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이해교육을 통해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2000년 8월에 유네스코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을 한국에 설립했다. 이처럼 국제이해교육이라는 정치적인 경향이 있는 지역기구를 한국에 설립한 것은 남북 분단 상황을 제약적 요소로 보지 않고 오히려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좋은 여건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4) 국제기구 주한사무소

국제기구의 주한사무소(branch)로는 서울국제금융공사(IFC), 국제통화기금(IMF),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유엔공업개발기구서울투자진흥사무소(UNIDO-ITPO), 세계보건기구(WTO), 북서태평양보존계획(UNEP-NOWPAP), 국제이주기구(IOM) 등 총 8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표 3-2> 주한 국제기구 사무소

구분	국제기구	지역	설립연도
국제기구 주한사무소	서울국제금융공사(IFC)	서울	1998
	국제통화기금(IMF)	서울	1998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	1965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서울	2001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사무소(UNIDO-ITPO)	경기	1967
	세계보건기구(WTO)	서울	1949
	국제이주기구(IOM)	서울	1951
	북서태평양 보존계획 (UNEP-NOWPAP)	부산	2004

자료 :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1) 국제금융공사(IFC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부흥을 위한 기관으로 1956년 7월에 수권 자본(授權資本) 1억 달러를 들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자매기구로 설립되었다. IFC의 목적은 저개발지역의 생산적인 민간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개발의 성과를 올리는 데에 있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으며 한국은 1964년 가입했다.

IFC의 주요기능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충분한 민간자본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가맹국정부의 상환보증 없이 생산적인 민간기업에 투자한다. 둘째, 국내·외의 민간자본과 경험있는 경영을 결합시키는 어음교환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가맹국의 국내 및 외국민간자본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그 투자대상은 저개발지역(특히 중남미)이며, 민간의 농업·상업·금융업 등에도 투자 권한이 있으나 그 중점은 역시 공업으로 한다.

(2)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기금의 가맹국은 1999년 현재 178개국으로 한국은 1955년 8월에 가입하였다. IMF는 2차대전 후 세계의 금융 외환기구를 국제주의 원칙 아래 확립하여 외환을 안정시킴으로써 세계무역의 확대, 세계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은 1988년 IMF에서 빌린 외채를 모두 상환하고 외환자유화 의무를 수락하였으며, 1989년 IMF 자금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위상이 바뀌었다. 그러나 1997년 말 연이은 대기업의 부도와 금융위기 등 경제파탄으로 IMF에 총 150억~2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후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통하여 경제회복을 꾀하였다.

IMF 한국사무소는 1964년 개설되어 1987년 철수하였다가, 1998년 3월 재개설되어 미국 워싱턴에 있는 본부와 한국 정부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워싱턴 본부는 매년 4분기마다 1분기에 추진해야 할 지침을 내리는데, 한국정부는 이를 경제정책에 반영한다.

(3) 유엔개발계획(UNDP)

대한민국과 유엔개발계획(UNDP)의 협력관계는 1965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UNDP의 전신기구로 출범). UNDP는 지난 2000년까지 우리나라에 1천억원 (\$ 100 million) 상당의 원조를 해왔으며 그동안 한국경제발전의 각 단계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다. 1960~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농업생산력 향상과 기본의료 제공, 초등교육 확대에 기여를 하였고, 1980년대에는 고급 노동력 수요의 충족을 위해 노동훈련양성소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 들어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 환경보호, 양성평등,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DP 한국대표부의 주요업적으로는 1962년 시행된 제 1차 국가개발계획준비의 참여와 제 5차, 제 6차 계획의 수정, 평가작업의 참여를 들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대한민국의 개방화·세계화를 위해 부산-인천지역 근대화의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1970~1980년대에는 인적자원 양성, 산업개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관능력배양에 노력을 기울였다. 1990년대에는 세계 보건기구와 38개국의 승인으로 국내 최초의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를 설립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주요사업분야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들의 새천년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검증된 경제사회개발 경험과 기술을 이전한다. 둘째, 양성평등을 실현한다. 셋째, 환경보호의 강화, 국내·국제적 기준에 준하는 식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ODA)와 민관협력을 통한 기관의 사회적 책임증대와 국내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혜국이 아닌 지원국의 위치에서 사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자국에서 충당하고 있다.

(4)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서울사무소가 2001년 공식 개소되었다. UNHCR은 3년 후 국제난민기구(IRO)로 계승됐고, 다시 6년 후 국제난민기구가 발전적으로 해체되면서 유엔산하기구로서 세상에 모습을 보였다. 이 기구는 유엔사무총장이 임명한 고등판무관이 그 장이 된다. 고등판무관 아래에 국제보호부, 행정재정부, 원조부, 섭외부 등 4개부서와 지역 국가별 사무소가 있다.

(5) 유엔공업개발기구서울투자진흥사무소(UNIDO-ITPO)

유엔공업개발기구는 1961년 7월부터 1966년까지 유엔사무국의 한 부서(명칭 : 공업개발센터)로 존재하다가, 1966년 1월 1일 유엔총회 회칙 2152조 21항에 따라 유엔총회 직속기구로 창설되었고, 1986년 1월 1일에는 유엔의 16번째 전문기구로 개편되었다. UNIDO 본부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있다.

우리나라는 1967년 1월 UNIDO 창설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1987년 4월 UNIDO 서울투자진흥사무소가 개설되었다.

우리나라는 UNIDO 분담률에 따라 정규예산의 2.6%를 출연하고 있다.

(6)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기구(WHO)는 1949년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되었다. WHO 한국사무소는 보건발전 사업을 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본부에 기술원조를 요청하며 전염병 등 질병을 퇴치하는 사업을 한다. 또한 다른 전문기구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영양, 주택, 위생, 오락, 근로조건 및 환경위생 증진, 산모 및 아동의 건강 및 복지증진 노력, 정신질환 퇴치활동 등을 한다.

한국의 WHO 정규 분담금 규모는 2004년의 경우, 781.8만달러로 WHO 전체예산의 1.82%에 달한다. 부담순위는 회원국 중 10위이며, 서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인 분담금으로는 2002~2003년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약 138만달러 상당의 의약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하였고 2003년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계획에 따라 200만달러 상당의 의약품, 기자재 등을 제공하였다.

WHO에 진출한 한국인 정규직원은 모두 7명으로 이중 5명은 본부, 2명은 서태평양 지역기구에 근무하고 있다. 분담금 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인력규모는 15~21명 선인데, 현재 진출이 부진한 상태이다.

(7)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는 한국이 IOM의 정식회원국으로 가입(1988년)한 지 3년 후인 1992년 북미지역으로 이동하는 베트남 난민의 환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IOM은 지난 50여년간 전세계 지역사무소에서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 문제 해결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 내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1951년에 처음 설립된 IOM은 현재 명실상부한 국제조직으로서 전세계 인구 이동과 관련한 포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UN 협력체로서 그 외 여러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와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더불어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유민에도 관심을 가지고, 위급 시에 유민들의 대피를 돕고 전쟁이나 재해가 끝난 후에는 귀국과 재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8)북서태평양 보존계획(UNEP-NOWPAP)

북서태평양보존계획은 우리나라 최초의 UN해양분야 국제기구로 2004년 부산에 설립되었다. 유엔환경계획 산하로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UNEP 사무총장과 서명을 체결하면서 유치가 이루어졌다.

2. 지방자치단체

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송도경제구역에 국제기구단지 조성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아·태정보통신교육훈련센터(UNESCAP APCICT), 유엔도시방재연구센터(UNCUD :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for Urban Disaster Risk Reduction)의 유치에 성공하였다.

인천시는 뉴욕, 제네바와 같이 UN, 국제기구, 국제공공기관의 동북아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유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송도에서 국제기구 진출역량 강화 및 국제도시 홍보차원의 ‘아·태모의유엔회의(APMUU)’를 개최하는 등 사업비 670백만원을 투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의 추진사업으로는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NEASPEC) 사무국 유치, 유엔평화대학(UP EACE) 아·태센터 설립, 유엔기탁도서관(UN Depository Library) 유치, 아·태모의유엔회의(APMun) 개최 등이 있다.

인천시 국제기구유치 사업의 핵심은 국제기구의 유치로 시의 위상을 제고하

여 국제도시를 건설하며 이를 통해 UN의 밀레니엄 프로젝트와 관련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데 있다.

2007년 한해의 성과로는 인천시립도서관의 유엔기탁도서관(함마솔트)지위 획득 협의, NEASPEC사무국의 인천유치에 대한 한·러 협의, UP EACE 부총장의 시장 면담을 통한 인천유치 협의, 아·태모의유엔회의(APMun)개최 준비를 위한 워크숍 등이 있다. 2008년 7월에는 아·태모의유엔회의(APMun)를 열었다.

또한 국제기구유치에 관련한 심포지엄 및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국내·외 국제활동 관련인사를 초청하여 국제기구타운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07년 11월 23일에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유엔평화대학 조지스사이(Georges Tsai)부총장이 유엔평화대학의 인천유치를 적극희망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인천시뿐만 아니라 군·구, 다른 기관 및 부서, 시민단체 등도 함께 ‘국제기구 인천유치 TF 팀’의 구성·운영에 참여해 관련부서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협력적 추진노력을 보이고 있다.

(1) 아·태정보통신교육훈련센터(UNESCAP APCICT)

아·태정보통신교육훈련센터는 2006년 6월 16일에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문을 열었다. 지난 2005년 5월 18일에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 61차 UN ESCAP 연례총회에서 역내 ICT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APCICT의 한국 설립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 2006년 1월 30일에 설립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5월 30일 준비작업을 통해 6월 16일에 개소되었다.

이 훈련센터는 송도자유경제구역 내 경제자유구역청 3층에 500평규모에 IT 강의실, 세미나실, 회의실, 서버실, 강사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아·태지역의 62개 ESCAP 회원국가에서 선발된 정책결정자, 전문관리자, 강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6개 과정, 12명에게 IT 전문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아·태정보통신교육훈련센터를 통해 회원국 간 활발한 인적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IT인력을 양성하고, 아·태지역 내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정보화 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회원국의 ICT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자문, 교육 콘텐츠 개발과 전문화를 위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수행,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외 우수 IT기업의 투자 유치와 국제기구의 조직 및 운영 노하우 확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유엔도시방재연구센터(UNCUD)

최근 지구온난화 등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국제협력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시는 송도지역에 'UN재해경감을 위한 국제전략기구(UN/ISDR) 산하의 'UN 도시방재연구교육센터'를 유치하였다. 이와 함께 같은 기구인 '동아시아지역사무소'도 유치하였다.

UN의 국제전문가와 국내·외 학계, 방재전문가와 공동으로 이 교육센터의 기능과 조직, 운영, 교육프로그램, 동아시아 지역사무소 운영방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가 끝나고 조직 규모 등이 결정되면 2010년부터 연구교육센터와 지역사무소가 본격적인 운영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전세계의 자연재해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의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UN/ISDR 동아시아지역사무소'는 현재 태국(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과 타지키스탄, 파나마, 케냐, 이집트 등 5곳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재해경감을 위한 한·중·일 간 국제협력을 지원·조정하는 기구로 출발하고, 단계적으로 몽골, 북한, 러시아 등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UN 도시방재연구교육센터'와 '동아시아지역사무소'를 동시에 유치하게 된

인천시는 앞으로 세계 재해경감을 위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 남아시아의 쓰나미 피해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증가 때문에 재난분야의 국제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실용적 차원의 재해경감을 위한 교육연구센터와 지역사무소가 동시에 인천에 유치됨으로써 기관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은 물론 기존에 유치된 유엔정보통신교육원(UNAPCICT)과의 시너지 효과 증대, 우리나라 자연재해분야 역량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 부산광역시

(1)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Northwest Pacific Action Plan)사무국

해양수산부의 지원 아래 2004년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사무국이 유치되어 부산시 기장군 소재 국립수산물과학원 내에 소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UN 해양분야 국제기구인 NOWPAP 사무국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UNEP 사무총장과 가서명을 체결하면서 성립되었다. NOWPAP는 UNEP 지역사업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이 속해 있는 북서태평양의 해양환경 및 연안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천계획이다. 지난 1994년에 제1차 정부간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국가 간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의 해양환경종합정리관리시스템(DIMRAC), 러시아의 해양오염모니터링(POMRAC), 일본의 연안환경평가(CERAC) 및 한국의 해양오염 대응(MERRAC) 등 4개의 지역활동센터를 중심으로 국가마다 고유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NOWPAP 부산사무국은 정부간 회의에서 결정된 해양협력사업을 조정·관리하고 재정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며, 3명의 UN(P-4, P-3, G-5) 직원이 근무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해 해양분야 전문가가 과학기술전문가(P-3)로 선발되어 우리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였다.

NOWPAP 사무국이 유치된 부산 국립수산물과학원은 2004년 11월 2일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 및 회원국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개소식을 개최하였고, 11월 2~4일간 40여명의 한·중·일·러 정부대표와 UNEP, IMO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제 9차 NOWPAP 정부간회의를 개최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NOWPAP 사무국은 일본의 토야마 사무국과 함께 정부간 회의에서 결정된 협력사업을 조정하고 4개의 지역활동센터와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재정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여 회원국 간의 국제해양 환경협력활동을 촉진하였다. 부산사무국은 회원국의 해양환경 관련 입법 및 정책연구, 해양오염긴급대응 및 해양오염 방지대책 등 핵심적인 사업을 관리한다. NOWPAP 사무국은 우리나라가 유치한 최초의 UN소속 해양분야 국제기구로서 지난 1995년부터 우리정부의 끈질긴 유치노력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로써 동북아시아 해양환경 보전 활동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남북 간 해양협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도 이미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만 받던 입장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주게 되어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이 훈련센터는 경제적인 여건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해양환경보전 활동이 어려운 APEC 개도국들에게 기술이전과 직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육상 오염물질의 해양 오염 및 해양오염물질의 역내이동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동아시아환경관리협의회(PEMSEA)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각종 국제해양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양선진국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APEC e러닝 연수센터

‘APEC e러닝 연수센터’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부산에 유치되었다. 이는 APEC 회원국 간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인적물적자원의 교류를 촉진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 부산광역시, 부산대 등 6개 기관은

2006년 5월 부산대에서 ‘APEC e러닝 연수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연수센터를 개소하였다.

이 연수센터는 교육부가 연수프로그램전담기관으로 지정한 ‘APEC 국제교육 협력원’에 설치돼, APEC 회원국에서 선발된 연간 100여명의 차세대 e-러닝 리더들의 연수를 맡고 있다. 참여기관들은 2009년까지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300평 규모의 건물, 연수시설 및 관련기술, 운영비·사업비 13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6월 26일에는 ‘APEC e러닝 연수센터’에서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필리핀 등 APEC 역내 국가의 eHRD(e러닝을 활용한 인적자원개발)분야 차세대 리더들이 대거 참가하여 제6차 APEC e러닝 연수프로그램을 10일간 받았다. 또한 2008년 6월 1일에 사우디아라비아 고등교육부와 40만달러(4억원)규모의 사우디 e러닝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경기도

경기도는 2007년 11월 19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정성진 법무부장관이 브런슨 매킨리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사무총장과 IOM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자 지원 국제기구로 널리 알려진 국제이주기구가 신설한 산하기관이다.

경기도는 국제 이주에 관한 연구, 교육,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게 될 이민정책연구원의 유치로 국제기구 조직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세계속의 경기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국제회의와 포럼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

국제이주기구는 국제 이주민들의 권리증진 및 지원을 위해 1951년 설립됐으며, 2007년 현재 120개국의 회원국과 20개국의 협력국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간 국제기구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290개 사무소에 5,4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고양 일산서구 장항동 호수공원 옆에 위치한 웨스턴 타워에 들어서게 된다. 이 지역은 인근에 한류우드, 킨텍스, 차이나타운, 법조타운, 고양아람누리 등 국제적인 업무·문화시설과 주거단지 등이 밀집돼 있어 발전가능성이 큰 곳이다.

고양시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명품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연구원 유치에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008년 중 설립준비단 구성과 설립절차 이행 및 이민정책 고위급 연수과정 운영 등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초 정식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민정책연구원 유치가 경기도의 글로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 조직 및 운영의 노하우를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의식, 제도, 환경의 글로벌화 촉진으로 경기도의 세계화·개방화 진전과 각종 포럼·국제회의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연간 1만여명이 교육, 연수와 회의에 참석하여 1인당 2,624달러의 소비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부천시도 2005년 국제만화가대회(International Comic Artist Conference) 사무국 유치를 합의하여 부천만화가정보센터가 사무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브랜드 제고의 효과로서 외국인, 전문가, 전문가기술자 등 화이트 칼라 층이 유입될 것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촉진 및 컨벤션, 국제회의, 관광, 통역, 숙박, 등의 연관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계기로 UN, ASEM, 세계적인 NGO 등과 이민자들의 권익증

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를 이민자를 위한 허브(Hub of Human Capital)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외국인(72만여명)의 30%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다문화 공동체 사회건설을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민정책 연구원의 성공적 개원을 위하여 법무부와 공동으로 2007년 9월부터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유치지역인 일산에 고양시, IOM이 함께 참여하는 설립준비단을 운영중이다.

또한 유치지역인 고양시와 협력하여 연구원 사무소 제공, 운영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과 이민관련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기타 지역

(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1998년 시 주도로 설립된 세계과학도시연합(WTA : World Echnopolis Association)과 UNESCO-WTA산하 과학도시연구센터를 유치하였다. 또한 UN 및 통계청의 합작설립으로 국제통계발전센터(ISDC)를 유치하였다.

(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2003년 도쿄 UN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과 MOU를 체결하여 유엔대학교 환경연구소를 유치하였다.

(3) 강원도

강원도는 UN 국제주거위원회(HABITAT) 국제훈련센터(IUTC, 2007년 4월 흥천)를 개원하여 도시화 및 환경복원, 생태보존기술, 정주환경 유지 및 개선 등의 전문훈련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해양수산부 지원 아래 2003년 11월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를 유치하였다. AMETEC는 거제시 장목면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훈련센터에 소재한 국내 최초의 해양관련 국제기구이다.

(5) 제주도

제주도는 2001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였으며, 정부지원하에 본격적인 연구교육기관으로서 ‘제주평화연구원’이 2006년 3월 문을 열었다.

3. 시사점

중앙정부의 주도로 유치된 국제기구의 경우 대부분 국제 활동이 부진한 실정이다. 주한국제기구의 경우 주한사무소를 제외하고 총 5개의 기구가 유치되어 있지만, 존재의 유무조차 알지 못하며, 유치된 국제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 경제, 대외적 분야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제기구에게 제공되는 많은 재원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재정적인 손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국내도시 간 도를 넘는 경쟁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할 경우 도시경쟁력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국제기구 유치의 궁극적인 목적을 항상 인식하고 유치 이후 지속적인 관리로 국제기구의 국제 활동을 촉진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천이 최근 국제기구 유치에 가장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송도경제구역에 국제기구를 유치하였으며 현재도 계속적으로 체계적인 유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은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각종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제기구에 관련한 해외인사들을 초

청하여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발한 국제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국제활동 및 관련 해외인사들과의 접촉이 필요하며 국제기구 유치전후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와 같은 국제회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부산광역시가 APEC e러닝 연수센터를 유치한 사례를 보면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유치를 추진하면 그 가능성도 높아질 뿐 아니라, 국제기구 관리적 측면에서도 해당자치단체의 관심이 지속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유치추진은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국제이주가구(IOM)의 유치에 성공한 경기도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유치를 통해 유치과정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국제기구활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4장 국제기구 유치전략

제1절 유치여건 개선

제2절 도시 매력도 증대

제3절 접근성 개선

제4절 인적자원 확보

제4장 국제기구 유치전략

제1절 유치여건 개선

이 절에서는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서울의 위상을 정립하고, 서울의 국제기구 유치여건을 SWOT분석을 통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세계 속에서의 서울의 위상

한국의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서울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이 세계적인 경쟁력 순위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순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보고서에서 유럽의 나라들은 점차 경쟁력이 감소하는 국가로 분류되는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는 경쟁력이 증가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특히 중국은 아직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들보다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되어지고 있다. 실제로 상하이와 베이징의 잠재력은 상당히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각종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 도시들은 패러다임 변화와 핵심 기반 구축, 경영시스템 변화 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급부상하고 있는 베이징 중관촌이나 상하이의 푸둥, 시안 기술개발구의 IT산업, 도쿄의 메갈로폴리스 구상과, 리노베이션 프로그램은 세계적 주목 대상이다.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은 역사 및 지정학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세 나라의 대도시권 문제는 국가별 공간정책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북아에서 서울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도 그만큼 절실한 문제다.

1995년 전후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다른 경쟁도시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태였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서울의 경쟁력은 어떤 상태며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되새겨 봐야 한다.

한국 혹은 서울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2000년대 들어 나뉘대로 높아졌음이 분명하다. 부분적이지만 세계 10위권에 가까운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으며, 특히 통신 인프라의 급성장세에 힘입어 한국과 서울은 IT메카로까지 발전했다. 지식생성 및 정보관련 분야의 성장세는 향후 미래 전략산업과 지식정보 허브로서 서울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공공제도 및 민간제도, 노동시장이나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기반시설도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생활환경 및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더욱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유치여건에 대한 구체적 사안은 다음 SWOT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2. SWOT 분석

1) 강점(Strength)

첫째, 서울시는 국제행정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게 할 IT와 같은 정보·통신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2003년, 2005년 세계전자정부 1위를 차지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IT기반 구축에 주력하여 IT대표 도시의 입지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역할에 있어서도 IT의 비중이 작지 않고 IT위주의 회의 시스템이나 정보전달 방법 등이 확대되는 추세로 볼 때 튼튼한 IT기반 구축은 국제기구 유치에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서울시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런 지리적 강점은 정치적으로도 이어져 한국이 성공적 개발도상국가로 중국 및 일본 등 강대국들에 대해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다. 또한 한

반도 안에서 서울은 서해바다와 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에 인접해 국제적 접근성에서도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한국의 국제적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세계경제 10위권으로 IT 강국이고, 2002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으며 각종 국제경기 및 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한국의 수도로서 각종 국제대회 및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베이징, 도쿄와 함께 동북아의 핵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넷째, 국제적 역할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제적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국제사회에 진출하려는 기업 및 개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취임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현재 서울시가 기후, 디자인, 관광, 환경(도시 및 산림)을 주요정책으로 삼아 주력하고 있는 점이다. 서울시의 이들 주요정책 방향과 함께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점은 유치과정에서도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쉽게 이루어져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여섯째, 서울시는 자본유입과 지식생성 및 정보유입, 비즈니스센터 분야의 도시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서울은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대학교수나 연구자수, 지식정보활동을 위한 여건 그리고, 국제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약점(Weakness)

첫째, 선진강대국에 비하여 국제화 여건이 열세에 있다는 점이다. 앞장에서도 국제기구 분포에 대한 한국의 위치현황에서 나타나듯이, 국제적 역할의 많은 점이 선진강대국에 비하여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안정적인 기구나 시스템의 역할은 거의 없으며, 일시적인 국제행사 및 단기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

둘째, IT와 같은 기본적 인프라는 강하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응용적 인프라 시스템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언어와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이며, 국제인력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및 편리성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이다. 현재 많은 자치단체들이 국제사회 진출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여 자치단체 및 기업, 개인이 국제사회로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지원부족을 한편으로 국제회의 및 행사 유치에 몰두하여 자치단체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킨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이 적지 않은 국제회의 및 행사를 유치하였지만, 국제기구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대부분 추진자체에 의미를 두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현재 국제기구가 과부화 상태로 국제기구의 규모 축소와 예산절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복적인 성격의 국제기구가 많아지고 있어 새롭게 국제기구를 유치하려는 국가에게는 큰 장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기회(Opportunities)

첫째, 현재 서울시가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는 것은 반기문유엔사무총장으로 인하여 한국인의 국제사회 활동에 대한 국내·외 변화로 진출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반기문총장이 앞으로 10년간 활동하게 되면, 국제외교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며, 기존의 국제활동을 극대화하여 국제사회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금융과 기후관련 및 기타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중앙정부 측면에서도 국제기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국제기구의 유치와 연계하여 활동할 계기로 볼 수 있다.

셋째, 남북 분단의 현실이다. 이 점은 국제기구 유치에 약점과 위기의 양날

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남북 분단의 현실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남북관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동북아 주변국은 남북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평화에 관련한 국제기구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 의의가 될 수 있다.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라는 점을 부각하면 남북관계의 개선촉진을 위한 국제적범위의 평화기구 또는 동북아시아의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넷째는 인권문제이다. 이는 앞의 남북관계와도 연관된다. 최근에 북한 인권 문제가 불어지면서 국제적인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비무장지대에 인권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2006년에는 DMZ 인근 도라산역에서 평화·인권에 관련한 포럼이 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인권에 관련한 국제기구를 유치할 기회를 삼을 수 있으며, 앞에서 제시한 평화와 함께 유치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위기(Threat)

국제기구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여건조성 노력도 중요하지만 위기에 대한 예측 및 대처방안도 필요하다. 국제사회 진출을 통하여 세계적 선진국가로 도약할 기회도 주어지지만, 자칫 잘못하면 복구할 수 없는 후진국가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첫째, 무엇보다 북한과의 관계이다. 현재 남북은 분단국가로 50년이 넘게 대치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교류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양적 질적관계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정상회담이나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이라는 크나큰 남북교류의 실적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거보다 개선된 관계이지, 국제사회가 믿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인식하기에는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남북문제는 남북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확실하다.

둘째, 국제기구의 유치가 국내경쟁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점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들이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국제회의 및 행사 유치에 관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자매결연을 얼마만큼 많이 맺었고 국제회의를 얼마나 많이 유치하였는가라는 양적인 문제에 매달려 국내 경쟁으로 끝나게 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들러리로 전락할 뿐이다.

셋째, 서울시가 기존수도 역할에 안주하는 안일한 자세이다. 서울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은 노력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유치되는 국제행사 대부분을 유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서면서 그동안 서울에 유치되던 많은 국제회의 및 행사들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국제회의 및 행사보다 정기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활성화해야 하지만, 수도라는 역할에 만족하는 안일한 자세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제관련 행사 수요를 빼앗기고 있다.

넷째, 전문적인 인력관리시스템과 재정의 약화이다. 국제기구를 유치하려면 가입국을 모두 설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국제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우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관리시스템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인력들도 주기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국제기구 가입국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성이 약화되고 일관성이 없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유치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과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국제기구의 유치에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시간이 아닌 장시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시스템화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게 국제기구유치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그림 4-1> 유치여건 SWOT분석

3. 유치여건의 개선 방향

만일 어떤 국제기구가 동북아 지역에 본부 및 사무소를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어느 도시를 선택할까? 지리적 위치와 접근성, 행정적 규제와 혜택, 인력 공급 가능성, 의사소통 문제, 물가, 의료, 교육시설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선택하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대부분이 제조업이나 도매업 서비스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2001년 이후 소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까운 일본과 중국의 투자는 줄어들었다. 특히 일본의 외국인 직접투자건수는 2005년 134건에서 2007년 97건으로 대폭 줄었으며, 중국의 경우도 같은 기간 168건에서 91건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한국인의 해외투자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외국기업의 유치가 국내기업마저 밀어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울이 외국인들에게 사업이나 거주의 매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의사소통문제다. 간판과 안내문을 비롯하여 모든 공식 문서나 행정 문서가 대부분 한국어로만 작성되어 한국어가 불가능한 외국인에게는 큰 장벽이기 때문

이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가 통용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접근성이다. 접근성의 핵심은 교통체계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기 위해 이용하는 가장 첫 번째 교통수단이 항공기이기 때문에 공항과 주요도시의 연계관계가 가깝고 편리해야 한다. 그렇지만 중국-한국-일본이라는 연계성을 통해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유럽의 경우 국가간 이동이 한 국가의 도시처럼 쉽기 때문에 관광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인재양성이다. 이는 국제기구의 유치에 필요한 인력자원 제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기구의 유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매력도 증대, 접근성 확보, 인력 확보가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도시 매력도 증대

외국인의 서울에 대한 매력을 증대시키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쉽게말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제생활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얼마나 편하고 즐겁게 생활을 하느냐에 있다. 이러한 점을 국제기구에 적용하여 보면 상주하는 국제기구의 외국 인력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격으로 학교, 병원, 쇼핑, 기타 생활시설을 이용하고, 행정적 문제 및 의사소통의 용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낮은 물가로 생활하기에 편한 국가로 평가된다고 해서 서울에 대한 매력이 증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의 대표성이 낮은 물가와 생활의 편의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해답은 외국인들이 해외방문 때 서울을 선정하여 찾아오는 이유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 또는 서울을 알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즉 자신들이 모르는 서울의 문화, 전

통, 역사와 이를 축적하여 만들어낸 지금의 한국을 알고 동화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서울의 아이덴티티의 확립이다.

서울은 500년 왕조의 수도와 근대국가 공백기의 식민지 수도로 축적한 모든 물리적 역사적 기반을 1950년 전쟁으로 잃었다. 그러나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여 오십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놀랄만한 재건을 이루고 세계도시 혹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려는 좌표를 설정하는 단계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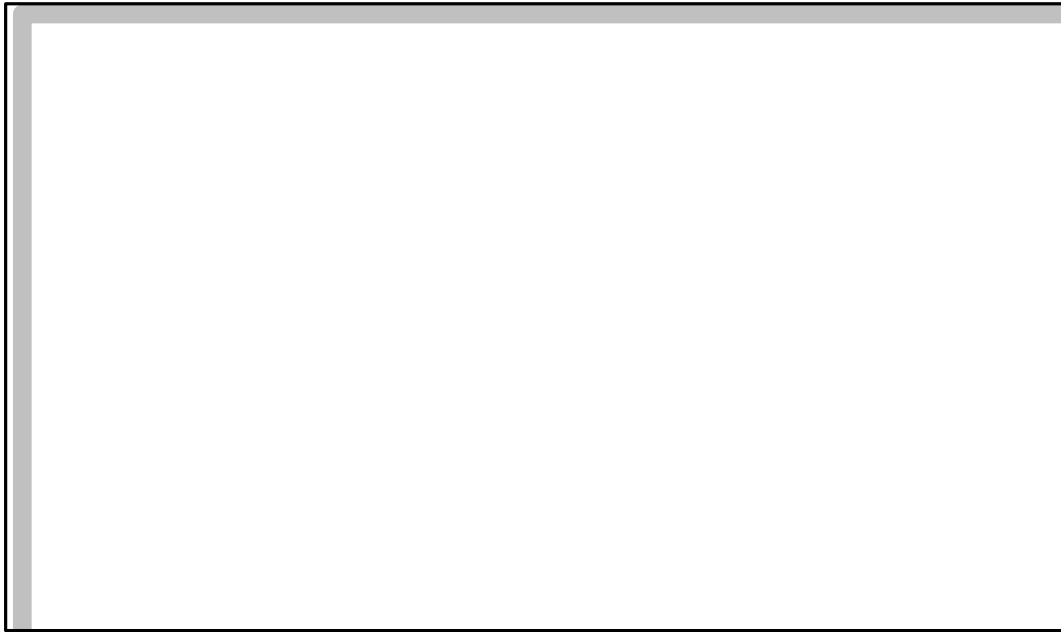
그 동안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나 해법 대부분은 경제활력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세계도시체계에서 경제경쟁력은 필요조건이긴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경제적 명령통제소(Command Post)로서 자본축적과 생산의 결절점 역할은 기본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세계도시의 반열, 특히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수준의 세계도시로 성장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의 아이덴티티, 서울만이 갖는 개성과 매력을 확립하는 일이야말로 서울이 동북아 중심도시, 나아가 세계 최고 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첫 걸음이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세계 최고 명품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와 동시에, 동북아라는 지역 배경에서 서울이 갖는 아이덴티티 정립도 중요하다. 이 작업은 서울이 동북아에서 모든 분야의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속에 완수된다. 특히 동북아라는 지역 차원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역으로, 그 과정 속에서 서울 자신의 아이덴티티도 새롭게 정립될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 지역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작업은 지역 내 국가 간, 도시-지역 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와 동북아인으로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서 출발한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목적은 동북아인으로서 개인 또는 시민이 주도하는 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객관적 역사기술, 자문화중심주의 탈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미래상 공유, 동북아 지역 소속감과 정체성 형성 등 중요한 과제들을 추진하는데 있다. 이 작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로, 2010년까지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동북아 사회문화협



자료 : 동북아시아위원회(<http://www.nabh.go.kr>)

<그림 4-2> 동북아 사회문화협력 단계별 추진도

력 기본전략을 완성하고 협력선도사업과 교류촉진에 중점을 둔다. 2단계는 2015년까지 그 협력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다자 간 또는 시민사회 간 협의체 구성에 주력한다. 마지막 3단계는 2020년까지 본격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교류협력의 일상화에 초점을 둔다. 3단계의 구체적 과제로는 자국 중심적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한-중-일 공동 역사교재 활용 확대 및 신규발간, 동북아역사재단 등 국내 외 학술기관 및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동북아 공동역사 정립, 동북아 공동역사체험 프로그램 가동 등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서울시는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를 측면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서울만이 갖는 개성과 매력을 바탕으로 한 아이덴티티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한다.

1. 매력을 바탕으로 한 중심성 제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서울이 자신의 좌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세계 도시와의 경쟁이라는 강박적 접근에 앞서 자신이 누군지부터 제대로 알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바탕이 되는데, 서울의 매력을 확인하는 작업이 그 출발점이다.

홍콩대학의 응미캄(Mee Kam Ng)과 피터 힐스(Peter Hills)는 세계도시(World Cities)에 만족하지 말고, 위대한 도시(Great Cities)를 지향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위대한 도시란 완벽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기술과 사회-인간발전이 선순환으로 연계되는 도시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제3섹터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위대한 도시의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이다. 그들은 경제적 경쟁력, 특히 이노베이션 동력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들 식으로 말한다면 지속가능성이야말로 21세기 도시의 진정한 경쟁력이다.

그들의 지속가능성 조건에는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도시사회공동체적 기반 및 여가활동이 포함된다. 지극히 상식적이며 동의 가능한 주장이다. 서울의 지속가능성도 당연히 이런 것들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서울만의 지속가능성, 서울만의 경쟁력 원천이 필요하다. 오직 서울만이 공급 가능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21세기 도시경쟁력의 핵심요소다. 미래 서울 경쟁력의 충분조건은 서울 특유의 매력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서울의 특유 매력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서울은 세계 유수의 문화·역사 중심지로 역사자체가 자산이다. 이씨 조선왕조와 그 보다 천년 앞선 한성백제의 도읍이며, 고구려-백제-신라의 각 축장으로서 2000년 가까운 역사를 갖는다. 이런 역사적 무게로 비교할만한 도시는 세계적 도시 가운데 베이징 정도밖에 없다. 문제는 역사를 현 시점의 경쟁요

소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둘째, 서울은 세계평화를 상징하고 세계평화의 메시지를 발원하는 도시다. 서울과 같은 규모의 세계적 도시가 전쟁발발 잠재지역에 존재하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이면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전쟁위험이 고조되면 서울의 위치는 결정적 핸디캡이지만 거꾸로 서울의 위치를 활용해서 전쟁 위험을 막는 방식을 도출한다면 서울은 평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한다. 즉,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평화를 이뤄내는 Testbed로 활용함으로써 서울을 평화의 성지로 우뚝 세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이 과거의 지정학적 약점을 동북아 수도로 활용할 동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있다.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대륙철도교통과 연계를 강화하여 서울이 유라시아의 관문이 되는 전략이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는 공동으로 192억 달러를 투자해 2018년까지 21세기 판 ‘실크로드’를 건설할 계획인데, 서울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 속에 ‘호랑이 등에 타고 가는’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서울이 동북아 및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과 역할, 서울을 포함한 국내 여러 도시가 동북아-유라시아 교통망에 연계되는 방식, 그 속에서 서울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갈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서울은 위대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명산과 대하를 거느린 세계도시인 서울이 거의 유일하다. 천혜의 경관자산을 억누르는 품격 낮은 인공자산을 개선하는 일만으로도 서울의 경쟁력은 몇 배 증가하리라고 본다.

넷째, 서울은 경쟁력 있는 대중문화의 온상으로서 가치를 지녔다. 한류의 발원지이자 독창적인 미래문화의 산실로 입지를 굳힐 잠재력이 있다. 서울이 가진 대중문화 생산력에 문화역사 유산을 접목하고, 이를 응용산업으로서 참신한 향락문화 및 관광서비스로 연결시키는 일이 과제다.

다섯째, 서울은 동북아 지식허브로서 잠재력이 크다. 동북아 관련 지식이 축적돼있고, 동북아 협력에 대한 아이디어가 풍부하며, 동북아 아이덴티티에 관한 지식을 도출하는데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여기에 조금만 더 노력을 더하면, 북한관련 지식이나 남북한 평화공존과 협력 등 평화의 여러 공식에 관한 지식의

메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풍부하고 깊은 IT인프라는 이 과정에 밑거름이 되며, 홍익인간-제세이화 같은 수천 년 전통의 정신자산은 그 자체로 인류보편의 정신자산으로 공유, 활용될 가치를 지닌다.

서울의 이런 자산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적 매력을 극대화하고, 그를 통해 전 세계 사람과 자본과 기술을 흡인하는 전략이 21세기 서울발전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 이는 중심성(Capacity, Centrality)을 높여 위상성 혹은 매개성 (Network, Positionality)을 향상시키는 전략이다.

‘동북아중심도시 서울’은 세계적 도시인 서울의 두 측면, 즉 ‘세계도시 서울’과 ‘공동체 서울’이 만나는 접점으로 봐도 좋다. 동북아 중심도시 서울은 세계도시 서울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서울을 담는 그릇이 된다.

서울이 동북아 중심도시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동북아에 관한 한 최고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미국 남가주대학 에릭 헤이킬라(Eric Heikkila)가 지적했듯 글로벌 엘리트 계층이 서울에 오는 까닭은 서울이 뉴욕이나 런던과 비슷한 그 무엇을 제공해서가 아니라 서울만이 가장 잘 하는 부분, 이를테면 세련된 전통문화 향기와 개성있는 생활문화에 끌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서울에 오면 동북아에 관한 모든 지정학적 정보, 사업정보, 문화정보가 충족돼야만 한다. 외국인들이 한국만이 아닌 주변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와야만 한국이 동북아 중심도시가 된다. 이 또한 서울 아이덴티티 전략의 핵심이 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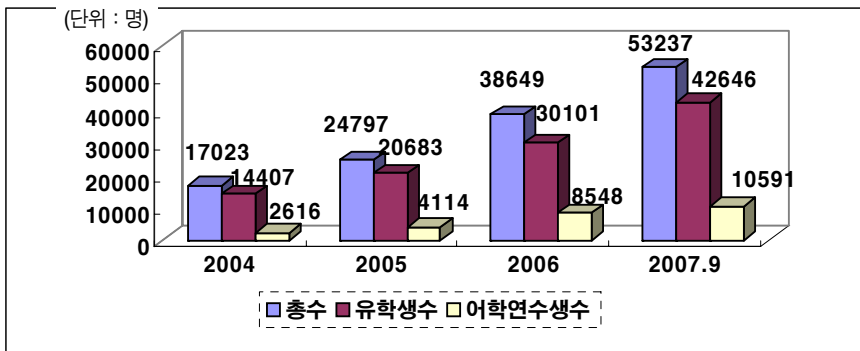
2. 문화-교육 강화

서울이 동북아 지역에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문화-교육-인재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서울의 강점인 정보화 기반을 이용해 문화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최근 한류열풍은 한국이 보유한 문화와 IT가 복합된 CT(culture technology) 분

야의 지식역량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에서 동아시아 신세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는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교류, 이를 매개로 하는 지식의 공개와 공유가 있었던 것이다. 서울은 IT 강점을 활용해 진정한 동북아 문화허브로 나가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 문화 엑스포, 드라마 페스티벌, 온라인 게임 등 콘텐츠를 IT환경에 탑재 전송하여 문화적 중심성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서울의 인재 배양 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시급하다. 특히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한·중·일 3각 공동 고등교육 기관·연구기관 설립을 통해 유능한 외국 인력을 유치하는 한편, 단일국가나 도시차원을 넘어 동북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 예를 들어 환경문제, 식품안전문제, 경제공동체, 한강 르네상스 플랜, 한·중·일 한자 통일 등의 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동북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로 인정받을 때 서울이 동북아 중심도시가 되는 중요한 조건 하나가 충족되고, 최고 인력에 적합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 하나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조를 통해 외국 전문인력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료 : 법무부, 『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서울 : 법무부, 2007

<그림 4-3>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셋째,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원활하게 연계하는 전략이다. 서울이 유치해야 할 외국인투자 대상은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사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이들 기업의 시각에 맞는 국내·외 인력을 쉽게 채용케 하는 체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의 구인수요와 구직수요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서비스가 그 한 예다.

3. 평화도시 이미지 확립

이 전략은 앞서 언급한 서울의 매력을 바탕으로 한 중심성 제고 전략과 관련있다. 이는 서울에서만 가능한 매력이 바로 평화도시로의 발전 잠재력과 상징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전략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무장지대(DMZ)를 서울의 자산이자 상징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27일 합의된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분계선(MDL) 남북으로 각각 폭 2km로 설정된 군사완충지대이다. 서울은 완충지대가 갖는 긴장과 안정의 이중적 기능, 즉 긴장완화 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남북한 화해와 협력 수준을 크게 높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비무장지대가 지구적 공공재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하는 긴장은 전 인류의 긴장으로 확대 가능하며 반대로 비무장지대의 평화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를 활용하려면 북한체제 변화와 남북한 관계 개선 등 국가 또는 국제문제 차원에서 제약조건이 있지만, 주어진 조건 하에서라도 최대한 활용전략을 모색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민간인통제지역 주변의 ‘접경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2조)은 인천·경기·강원 3개 시·도 내 15개 시·군 일부지역(총 15읍·76면·7동)을 ‘접경지역’으로 정했다. 이 ‘접경지역’ 가운데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파주시, 강화군 일부지역은 서울시와 연접(양주시 장흥면)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접경지역’ 지자체는 북한 지역 - 예컨대 철원군/고성군의 경우 각각 북한쪽 철원군/고성군 - 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접경지역개발계획을 모색 중이나 이들 계획은 묘책 없이 그만그만한 지역축제에만 머무는 수준이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나 연어부화장 건립 등 소규모로 추진된 사례를 제외하면 북한 지역과의 교류는 아직도 희망사항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남북협력단지 및 생태관광공원 조성 등에 머무는 개발 아이디어도 문제다. 한 마디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 배정되는 적지 않은 예산이 사용 방식을 제대로 찾지 못해 사장되는 실정이다.

이들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자체 능력만으로는 남북한 주민의 복리를 모두 증진시킬 방법이 나오기 어렵다. 개발이든 보존이든, 혹은 비무장이든 생태보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남북한 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공식을 도출하기에는 인력과 제도적 여건이 크게 미흡하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만 지원을 요청하는 이들 지자체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수도로서, 그리고 동북아 평화의 상징으로서 아이덴티티와 위상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들 지자체에 설립된 많은 위원회가 북한과 교류협력을 표방하지만 전문인력도 권한도 미약하여 유명무실한 상태임을 감안,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재정지원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인력 지원이나 대 중앙정부 협력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접경지역’ 개발이 서울과 관계없는 변방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로 상징되는 한국의 과제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이 국경을 초월하여 동북아 다른 도시 - 지역과 주도적 관계를 설정하는 일과 국내 타 도시 - 지역과 주도적 협력 관계를 설정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러한 협력 위에서 세계평화의 발원지이자 시험대, 그리고 평화에너지 접화지로서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 동북아에서 위상을 높이는 독특한 전략을 확립하게 된다. 남북화해장터, 세계평화박물관, 유엔환경기구, 동북아안보기구 사무국, 북한관련종합정보센터, 비무장지대 가상체험관 등과 같은 시설이나 기구를 유치해 비무장지대 - 접경지역을 활용하고 연계하는 평화관광, 특히 북한 쪽 비

무장지대 혹은 ‘접경지역’까지도 평화관광벨트로 포함시키거나 평화관련 시설입지를 통해 ‘평화지역’으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서울과 ‘접경지역’이 근거리임을 감안할 때 이들 ‘접경지역’의 평화관련 개발은 서울의 평화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직접적 기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접경지역’에는 생태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인구밀집이 필요하다. 인구밀집 없는 평화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인구밀집은 반드시 상주인구일 필요는 없다. 유동인구, 특히 서울에서 이 지역을 오가는 유동인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위에서 예시한 내용을 포함, 다양하고 입체적 방식을 활용한 유동인구 및 상주인구 증가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북한의 특정구역을 임차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명확한 동북아 중심도시 비전을 갖고 중앙정부 혹은 북한 지자체와 협력하거나 미국 등 관계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동북아 내 다른 도시와 협력을 통한 우회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다면적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한강르네상스플랜과 연계한 서해주운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통해 ‘평화해양도시 서울’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전략이다. 한강에서 선박을 이용해 북한 해주경제특구와 연결하고 나아가 중국 대련, 금주, 천진, 연태, 위해, 연운항, 상해와 연결되는 해상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이를 한반도 운하망과 연계할 경우 동북아지역 주운관광벨트도 구축도 가능하다. 물론 비무장지대의 평화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전략이다.

셋째, 남북한 육상교통로를 연결해 ‘유라시아 관문도시 서울’ 위상을 확립하는 전략이다. 이는 유라시아 교통축 연결이라는 상위 스케일의 당위성으로 비무장지대 평화벨트를 북한 지역으로 확산시킨다는 발상이다. 서울-평양(경의선을 통한 TMR/TMGR/TCR/TSR 연결), 서울-원산(경원선을 통한 TSR 연결) 육상교통축을 남북평화공존을 넘어 세계평화와 번영의 기축으로 발전시키자는 남북한 공감대 형성과정에서 서울이 중앙정부와 함께, 혹은 중앙정부를 리드하여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3절 접근성 개선

국제기구 인력 이동을 매개하는 교통 인프라는 국제사회에서 서울의 매개성을 높이는 핵심요소다. 이 절에서는 교통 인프라, 특히 항공, 육상, 해상교통 인프라를 통해 유치여건의 개선전략을 중심으로 제안한다.

1. 항공 인프라

1) 한-중, 일-중 에어셔틀 확대

베이징-서울-도쿄 간 동북아지역에서 에어셔틀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서울(김포)~도쿄(하네다) 노선의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김포~상하이(홍차오) 노선이 개설될 경우 기존 인천~푸둥 노선에 비해 공항 접근시간의 단축(약 1시간)에 따른 편익으로만 연간 1,000억 원이 발생하리라고 예측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기적으로 상하이와 더불어 베이징을 포함한 한-중-일 에어셔틀 확대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인천-베이징 항공수요는 연평균 5.7%, 톈진 공항까지 포함할 경우 연평균 9.4%의 증가율을 보였고, 2005년 기준 143만 명을 수송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에는 그 수요가 더욱 폭증하리라고 예상된다. 베이징의 에어셔틀 공항으로는 남쪽과 서쪽에 위치한 난양공항과 지자오공항이 바람직하다. 두 공항 모두 베이징 환상간선도로망(Ring road)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베이징수도공항보다 도심접근이 용이하고, 혼잡 및 수속지연 요소가 적은 이점이 있다.

2) 비즈니스 및 여행 관련 한-중-일 무비자 입국

동북아지역의 여객 수송은 주로 항공이 담당한다. 2005년 기준 항공부문의 여객분담률은 서울~베이징 노선의 경우 60%, 서울~도쿄 노선의 경우 85%에 달한다.

서울~베이징 노선의 여객분담률 중 나머지 40%는 선박(페리)이 분담한다. 2005년 9월부터 한국과 중국은 선박으로 특정항구(인천, 평택, 군산항)로 입국하는 중국인(복수 무사증 입국 대상 증빙자)에 한하여 월4회 범위 내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 조치는 한-중 간 소규모 무역거래에 종사하는 중국인의 한국 입국 촉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페리를 이용할 경우 시간은 항공에 비해 6배 정도 더 소요되는 반면, 요금은 항공보다 그리 싸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2003년 45만 7천명에서 2005년 97만 2000명으로 연평균 45.8% 급상승한 점은 무비자 입국의 극적인 파급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일 간에도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 중 일시적 무비자 방문을 허용한 후 2006년 3월부터 비즈니스 및 여행 목적 방문에 대해 무비자 입국(90일 제한)을 전면 허용했다. 이 조치 또한 2000년 이후 연 18%씩 증가하고 있는 부산~후쿠오카 페리 이용객 증가추세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 계획으로 동북아시아의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부 구간, 일부 교통편에만 허용하는 무비자 교류를 전 구간, 전 교통편에 전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시간절감 효과가 큰 항공노선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 시장 및 교류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한-중-일 항공시장 자유화

2006년 6월 한-중 간 합의에 따라 2010년부터 한-중 항공자유화가 예정돼 있다. 이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일, 중-일 항공자유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01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한 외국입국자 1,123만 명 중 일본인이 21%(240만 명), 한국인이 15%(170만 명)이었고,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Oneda, 2006). 또한 2006년 인천국제공항 기준 한국에서 출발·도착한 항공여객 2,819만 명 중 중국 출발·도착 승객이 722만 명(27%), 일본 출발·도착 승객이 627만 명(22%)으로 전체의 약 50%를 점유했다. 한-중-일 항공시장 자유화는 이런 추세를 가속하여 동북아시아 항공회랑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4) 공항 간 연계 증진

동북아 각국은 푸둥(상하이), 인천(서울), 나리타(도쿄), 간사이(오사카) 등 매머드 급 허브공항을 중점 육성해 왔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 내 소규모 거점 간 연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허브공항 일변도의 항공 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는데다, 반도체, 전자부품 등 고부가가치 경량화물 운송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규모 지역 간 항공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셔틀노선을 도입해야 한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여러 지방공항의 중국, 일본 노선 연계를 확대하고, 항공노선과 연계된 복합화물운송체계를 구축하여 허브공항과는 다른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육상 인프라 활용

1) 열차페리 복합운송

열차페리 복합운송은 환적시간 단축이 가장 큰 경쟁력으로 해상운송과 철도운송의 장점을 접목한 일관운송 방식이다. 열차페리 복합운송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독일-스웨덴 노선은 현재 18개 노선에 26개 페리가 운행중이다. 이중 Rostock~Trelleborg노선은 1994년 개통 이래 연평균 21.1%의 고성장을 지속 중이다.

2003년 건설교통부 연구에 의하면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한·중 열차페리를 도입해 TCR 및 TSR을 통해 중앙아시아 및 유럽으로 연계할 경우, 2010년 한·중 전체 물동량의 29.1%, 2030년 31.7%의 수송 분담효과가 발생하리라고 예측된다. 한·중 간 열차페리는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변수로 인해 육로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중요한 물류운송 대안이 된다. 이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인 한·일 열차페리와 연계할 경우, 명실상부한 동북아 지역 통합물류 운송체계로 나아가게 된다.

2) 육로교통 운송

열차페리를 이용한 동북아 육상운송은 중장기적으로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북한육로와 연계가 필요하다. 그 첫 단계로, 제한적이거나 북한철도 사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6년 남북한은 경의선 철도에 대한 시범운영에 합의하였으나 아직도 실행을 못하는 상태다. 북한철도는 매우 낙후된 상태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 중인 개성공단 개발과 연계하여 우선 북한철도의 혼잡·노후 구간을 개선하고, 남북간 화물운송 운임, 검역, 통관, 도난 및 파손 등 분쟁에 대한 제반협정 체결 등에 노력해야 한다.

북한철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일본과 적극 공조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지역 육상운송 시범연계를 중장기 목표로 삼아 국제적 협력을 주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육상운송 시범연계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및 일본의 대중국 물동량 중 상당부분을 철도가 분담하리라고 예측된다. 예를 들어 서울~선양 간 화물의 경우 철도수송분담률이 26.7~57.5%, 서울~베이징 간 화물의 경우 철도수송분담률이 10.1~19.7%로 예상된다.

열차페리든 철도연계든 동북아지역 인프라가 활성화하면 동북아 지역 내 교역은 물론이고 TCR 및 TMGR을 경유한 중앙아시아 및 유럽 행 운송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이에 따라 서울의 동북아 지역 내 중심성도 크게 높아지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 서울-평양시장 간 협의체 같은 상징적인 상설대화기구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 간 정치관계를 우회하여 도시-지역 간 협력의 틀과 명분으로 접근하는 전략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장)은 평양(시장)과 함께 동북아 화해와 평화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3. 해상 인프라 활용

1) 동북아지역 통합수송체계 구축

앞에서 언급한 열차페리와 함께 트럭일관복합운송 방식까지 포함한 동북아 지역통합수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트럭일관복합수송은 트럭페리로 운송한 화물을 트럭으로 공항까지 운반하고 항공기로 환적 수송하는 서비스다. 모든 운송 절차가 기존의 Sea & Air 화물과는 달리 하나의 AWB(Air Way Bill)로 진행돼 통관, Build up, 운반 등 중간절차가 대폭 축소된다. 동북아지역 통합수송체계의 목표는 열차·트럭·페리 복합운송과 여객운송까지 망라한 명실상부한 통합운송 체계이다.

2) 세계운하 연계 전략

운하가 갖는 이점은 운항거리를 최대한 좁혀 준다는 것이다.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됨에 따라 2만 4,500킬로미터이던 영국 런던~싱가포르 항로가 1만 5,027킬로미터로 9,473킬로미터나 줄었다. 2만 1,400킬로미터인 런던~뭄바이 뱃길도 9,927킬로미터나 단축했다.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 항구까지의 거리도 20% 이상 줄었다. 니카라과 대운하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미국 서해안과 동해안 항구 사이 거리는 800킬로미터 이상 줄어든다. 또한 인도의 세수사무드람 해상 운하가 건설되면 큰 배들이 더 이상 스리랑카를 우회하지 않아도 된다. 거리 단축과 함께 통행선박 대형화 등으로 인해 운임하락 등 선사의 해운 물류 서비스 환경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한강은 서해권의 통로이고 시작이며 중심으로, 2000만 인구가 거주하는 한반도의 관문이다. 한강과 연결되는 인천항은 부산항에 이은 국내 제 2의 국제무역항이며, 우리나라 해운 물동량의 20%에 가까운 연간 1억 톤 이상의 화물을 수도권 및 중부지역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동북아 중추공항인 인천공항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서해권 - 인천항 - 한강의 연결과 인천공항 및 수도권이라는 배경은 서울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부상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물류기반을 제공한다. 이 기반을 극대화하는 방식 중 하나가 운하를 통해 한강을 서해와 연결하는 전략이다. 국가 전체로 보면 연안운송과 내륙수운을 연계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물동량을 분산 처리함으로써 서울~부산 육상운송망의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다. 좀 더 넓게는 중국과 북한의 수운, 즉 압록강, 대동강, 황하, 양자강 등과 직접 연결하는 수상 운송망을 구축하고, 중국 중북부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적화물의 상당 부분을 확보한다면 서울이 동북아 경제권의 주도자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다. 아산항을 수도권의 관문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 운하와 공사가 재개된 경인운하를 이용하고 한강과 인천항을 관문으로 삼아, 서울을 동북아 교통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4절 인적자원 확보

인적자원 확보는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국제기구 유치의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체계적인 인적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인재의 양성은 추후 국제활동에서 전문 또는 고급인력으로 양성되어 국제기구를 추가 유치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제적 인적네트워크를 확보한다는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국제기구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국제기구의 인력운영을 살펴보고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인재들을 위해 서울시가 강구해야 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인재양성 프로그램

국제기구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핵심체제는 언어학습 프로그램이다. 국제기구는 종류가 다양한 만큼 분포되어 있는 국가적 범위도 넓기 때문에, 원하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싶으면 유치되어 있는 국가나 해당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언

어를 습득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의 외국어에 능통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제기구마다 이에 맞게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영프로페셔널 프로그램(Young Professional Program : YPP)이 대표적이며, UNESCO,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세계은행 그룹(WorldBank Group), 아시아개발은행(ADB), OECD, ILO 등 많은 국제기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1) UNESCO의 YPP

모든 국제기구가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마다 직원을 충원하기 때문에 해당전문분야는 다르게 제시된다. 기본적으로 서류, 면접, 어학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근무과정을 평가하여 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직원 채용에 있어서의 특징은 여성이 지원하기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 4-1> UNESCO 자격요건

기준	자격요건
국제기구명	UNESCO
나이	30세 이상
학위	학사학위 이상(업무경험 유리)
어학	영어, 프랑스어 능통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0),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2004)

2) OECD의 YPP

OECD의 YPP는 2년을 계약제로 하여 근무하게 된다. 2년 후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2년을 정규직원 보좌를 통해 업무를 파악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다.

<표 4-2> OECD 자격요건

기준	자격요건
국제기구명	OECD
국적	OECD 회원국 국적
나이	28~33세
학위	석사 학위 이상(3년간 해당경험 필요)이나 박사학위자 유리
어학	영어, 프랑스어 중 1개 및 제2외국어(거의 영어, 프랑스어 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0),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2004)

3) 세계은행 그룹의 YPP

세계은행 그룹의 YPP는 세계은행의 업무에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모집한다. 주요 분야는 경제학, 재무, 교육, 공공 위생, 사회 과학, 공학, 도시 개발, 자연 자원 관리 등이다. 두 개 부서를 12~18개월 동안 순환하며 근무하며, 순환기간은 관련업무 전반에 대해 경험 및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개발하는 기간으로 보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실무 경험을 쌓고 그룹의 운영과 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 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매년 약 40명의 지원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1963년 이래로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1,000여명 이상의 영프로페셔널이 고용되었다. 순환근무 기간 중 현장출장을 요구하며 현장경험이 없는 직원에게는 의무적으로 시골이나 빈민가 등의 현장업무수행을 하도록 한다.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 업무를 파악하고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

영프로페셔널이 되려면 학문적 성공과 전문적 업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뛰어난 분석 능력이 요구되며, 다양한 부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연성, 개발 업무에 대한 열의와 헌신, 외교술과 결합된 성숙함, 국제기구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다.

<표 4-3> 세계은행 그룹 자격요건

기준	자격요건
국제기구명	세계은행 그룹
나이	32세 이하(개발도상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유리)
학위	석사 학위 이상 또는 동등 학력을 지녀야 한다. 또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나 박사 수준의 연구 경력
어학	아랍어, 중국어, 불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또는 스페인어(개발도상국 언어 유리)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0),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2004)

4) 아시아개발은행(ADB)의 YPP

아시아개발은행의 YPP는 전반적으로 세계은행 그룹과 비슷하다. 하지만 아시아개발은행 가맹국의 시민권을 가진 30세 이하라는 점이 다르다.

다른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2년의 계약기간을 통해 업무파악이 이루어진다. 그 중 1년은 견습기간으로 3개의 부서를 순환하면서 근무한다. 근무순서는 지역국, 프로젝트국, 기타국에 소속되어진다. 이러한 기간을 통해 확실한 업무파악 및 업무수행능력이 인정되면 희망하는 부서에 정식으로 채용된다.

5) ILO(국제노동기구)의 영프로페셔널 프로그램(YPCEP : The Young Professionals Career Entrance Programme)

ILO의 영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제시된 국제기구 중 가장 긴 5년 동안의 계약을 통해 업무수행능력을 개발시킨다. 처음 1년간은 제네바 본부에서, 이후 1년 6개월씩 현지사무소 2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 1년은 다시 제네바 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이후 정식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된다.

YPCEP의 내용은 개개인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고안된 훈련 코스나 현직 연수 형태의 집중적인 훈련으로 되어 있다. 또한 Turin에 위치한 ILO 국제훈련센터와 함께 만든 집중훈련 프로그램에 일년에 2번씩 참가하게 되어 있다.

경영관리 능력과 효과적인 기술 향상을 중점으로 하며, 각 영프로페셔널이 보다 연령과 경력이 많은 직원과 짝이 되는 멘토링(Mentoring)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게 한다.

ILO는 기본적으로 다음 4가지를 중점 목표로 하여 근무하게 된다. 첫째, 노동 현장에서 기본적 원리와 권리를 촉진하고 실현한다. 둘째, 남녀 모두 기본적인 고용 안정과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셋째,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적 보호의 범위와 효과성을 증진한다. 넷째, 정부 - 고용주 - 근로자의 3자 협력체제(tripartism)와 3자간 사회적 대화를 강화한다.

<표 4-4> ILO 자격요건

기준	자격요건
국제기구명	ILO
나이	28~32세 이하(여성 유리)
학위	노동법, 국제법, 노동 경제, 경제학, 사회 과학, 사회학, 인류학, 통계학, 경영학, 석사학위이상이며 박사학위 유리
어학	영어, 불어, 스페인 중 1개(제2외국어 유리)
기타	뛰어난 분석 능력과 명료하고 간결한 문서 작성 능력, ILO 내의 여러 부서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성,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열정과 헌신, 통합성, 공정성, 판단력, 뛰어난 의사소통능력, 외교력 등이 요구된다.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0),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2004)

2. 국제기구 인력운영

1) 유엔직원채용시험

유엔이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은 크게 경쟁시험, 언어시험, 경력자채용, 후보자등록제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경쟁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표 4-5>와 같다.

<표 4-5> 유엔직원 채용 경쟁시험 자격

기준	자격요건
목적	유엔직원채용시험은 유엔사무국이 유엔의 부담금 부담액에 비해 직원 수가 적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실시
나이	-39세 이하로 p-1, p-2(준 전문가), p-3급(전문가)의 직원채용 -p-1, p-2(준 전문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집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과 32세 이상
학위	-p-1, p-2(준 전문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집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 이상 -p-3 직위는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와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이 시험에 합격하면 뉴욕, 제네바, 방콕, 나이로비, 비엔나 등의 도시에 있는 유엔사무국 관련 사무실에서 정규직원 전환
어학	영어, 불어 중 1개국 언어를 수행하지만 대체로 2개국어 이상 필요
기타	경쟁시험은 유엔사무국의 시험이기 때문에 사무국 및 관련 사무소 이외의 기구의 직원은 해당 사항이 없음.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0),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2004)

한국인을 위한 경쟁시험은 1992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정치, 재정, 통계, 행정, 전산, 도서관학, 인구학 등의 분야로 시험이 시행되었다. 경쟁시험에 합격하면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된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쟁시험의 응모 자격은 <표 4-6>과 같다.

<표 4-6> 유엔직원 채용 경쟁시험 자격(한국인 기준)

등급	자격요건
P1, P2급	-연령은 32세 이하로 한국 국적을 소유 -모집 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와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유리. -영어 또는 프랑스어 중에서 적어도 1개국 언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이외의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가 가능하면 유리(지원은 영어 또는 프랑스어만으로 가능) -1차 시험은 유엔 및 국제문제를 포함한 일반 분야와 전공분야, 2차 시험은 면접시험
P3급	-39세 이하(모집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로 한국 국적을 소유한 자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4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영어 또는 프랑스어 중에서 적어도 1개국 언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이외의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가 가능하면 유리(지원은 영어 또는 프랑스어만으로 가능)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응모자의 전문 분야 지식을 묻는 1차 필기시험은 일반논문 4시간, 전공논문 4시간에 걸쳐 시행 -면접은 전문분야와 관련된 질문, 인간성을 보는 질문, 유엔 직장의 적성을 보는 질문, 일반교양과 관련된 질문 -응모자 1인의 면접 시간은 약 1시간이다. 면접에 따른 뉴욕 체재비용은 유엔에서 지급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0),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2004)

다음은 언어시험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시험은 언어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언어시험은 크게 번역 분야와 통역분야로 나누어진다.

번역 분야의 지원자는 적어도 6개의 유엔공용어 가운데 2개국어 이상의 번역이 가능해야 한다.

통역 지원자는 6개의 유엔공용어 중 1개국어로 동시통역이 가능해야 하며, 적어도 다른 2개국의 유엔공용어로 말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력자채용에 응시하려면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과 관련 분야의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소한 전문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등록제도는 유엔측의 모집이나 채용시험을 기다리지 않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소지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직접 유엔에 지원하여 채용되는 제도이다.

취직을 희망하는 유엔기구의 소재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구의 인사부에 직접 이력서를 보내 후보자 명단에 등록해야 한다. 그 이유는 기구 내부에서 결원이 보충되지 않을 때는 우선 후보자 명단에 등록된 사람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유엔기구를 직접 방문하여 인사 담당 및 관련 직원과 상담을 거쳐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2) 고용제도¹⁾

유엔의 고용제도는 기본적으로 계약제를 택하고 있다. 유엔의 직원은 전원 소속된 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한다. 계약의 형태는 세가지다. 첫 번째가 단기계

1) 인적자원에 관련한 자료는 교육부(1999). 「국제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활용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2000).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제교육협력 강화 및 한국고등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활성화방안」,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2004). 「직업훈련분야 국제기구 국내유치과정 조사·연구」를 종합정리하여 제시함.

약(Fixed-term contract)이다. 직급이나 범주(핵심 직위인가 프로젝트 직위인가)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은 적어도 처음 4년간은 근무지의 유엔기관과 단기계약을 맺는다. 계약기간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1회, 길어야 2년이고 그 이상 근무하고 싶으면 계약이 끝날 무렵 갱신하면 된다. 두 번째는 견습계약(Probationary contract)이다. 최초 4년간의 단기계약이 끝난 핵심 직위인 직원이 그 대상이며 근무평가가 좋았을 경우 이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계약기간은 6개월에서 2년간으로 유엔직원으로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일하는 데 적당한 인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받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서도 영구계약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 단 시험 합격자에게는 2년간의 견습계약 기간을 거쳐 바로 종신계약이 주어진다. 셋째, 종신계약(Permanent contract)이다. 이 계약은 견습계약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유엔직원으로서 일할 만한 인물이라고 평가받으면 맺을 수 있다. 일단 종신계약을 맺으면 퇴직할 때까지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다. 이 계약은 종신고용과 비슷해서 한번 맺으면 해고당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기구에서도 고용의 유연화가 진행되어 종신계약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단기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종신계약은 오래 전에 고용된 고연령층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최근에 고용된 사람은 모두 단기계약을 맺게 된다. 예컨대 ILO 경우 정규직 계열(Regular track)과 임시직 계열(Temporary track)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규직 계열의 경우 견습기간(Probational period)이 1년씩의 단기계약 2회로 이루어진다. 이 견습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4년 또는 5년간의 단기계약으로 이어지고 그 계약을 계속 갱신해야 한다. 임시직 계열의 경우 1년의 단기계약을 맺게 되며 4회까지 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정규직 계열로 옮겨가고 싶으면 1년간 기관을 떠나 있어야 하며 이후 정식 채용 절차를 밟아 다시 고용되어 견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임시직은 정규직으로 채용되기에는 자격이 미흡한 경우와 교수나 연구직과 같이 본국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 일정기간 일한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최근 들어 후자의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3) 인턴십²⁾

구미 대학이나 대학원생은 종종 대학시절에 기업이나 단체가 실시하는 인턴 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실무경험을 쌓는다. 인턴은 대학이나 전공에 따라서는 필수로 되어 있기도 하고 선택 코스로서 학점을 취득할 수도 있다. 게다가 보수를 받는다면 경험 이상의 것도 얻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인턴은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재학 중에 알 수 있으므로 귀중한 체험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력서에 경력으로 기록할 수 있으므로 취직할 때도 매우 유리하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개발원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나 민간의 국제 컨설턴트회사는 2,000개 이상에 이른다. 이들은 1년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연수(인턴)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러한 기관에서의 인턴 경험은 내부 직원과 돈독한 인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인턴 현장에서 친구나 아는 사람이 생기면 인턴을 마치고 대학으로 되돌아가서도 그 기구나 관련기관의 인사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채용시험 때 추천자가 되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의 인적네트워크를 넓히는 기회로서도 인턴 기회는 무시할 수 없다.

유엔·국제기구의 인턴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유엔뉴욕사무국의 인턴십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자신의 전문분야나 평소 관심사와 연관지어 희망 부서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유엔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지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2개월 과정으로 1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 5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9월 중순에서 11월 중

2) 인적자원에 관한 자료는 교육부(1999), 「국제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활용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2000),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제교육협력 강화 및 한국고등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활성화방안」,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2004), 「직업훈련분야 국제기구 국내유치과정 조사·연구」를 종합정리하여 제시함.

순까지 등 1년에 3차례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무보수이지만 실무경험을 쌓고 유엔의 직장 분위기도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다. 첫째,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졸업생과 대학원생이 유엔 기구나 부서에서 근무함으로써 이론적 지식을 실제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둘째, 유엔 업무를 체험한다. 셋째, 본부는 우수한 학생들이 그들의 요구와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자는 인턴십 기간 동안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고등교육이 대학과 대학원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나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지원자는 적어도 3년 안에 연구를 끝마쳐야 한다. 대학원 학력 이하(미혼남)의 지원자는 적합하지 않다. 2단계의 학위를 이미 받은 지원자는 자격이 없다.

② 유엔 제네바사무국의 인턴십

제네바사무국이 홍보국 주최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서머 인턴십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한다. 여비, 체재경비는 모두 개인 부담이다. 국내에서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인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③ UNDP의 서머 인턴십 프로그램

장래 개발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에게는 유엔 최대의 개발원조 기관인 유엔개발계획(UNDP)의 업무나 활동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근무지는 현장사무소 또는 본부로 기간은 여름철 8~10주이다. 인턴에 채용되면 뉴욕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UNDP의 활동내용 등을 설명들은 뒤에 근무지로 배치된다. 여비를 포함한 참가비용은 소속대학에서 지원하거나 학생 개인 부담이다.

응모자격은 경제, 국제개발, 경영 등 개발원조 관련 분야의 석사과정 1년을 마친 자, 개발 분야에서 일할 의지가 있는 자, 그리고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중 2개국 언어로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제한된다. 그 외에도 아랍어나 포르투

갈어에 능통하면 유리하다. 또한 문화, 민족, 종교가 다른 사회에서도 적응이 가능하고, 그러한 배경의 사람과도 조화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④ IMF의 서머 인턴십 프로그램

33세 미만의 경제학 박사과정의 학생을 위한 인턴제도로 통상 매년 5월~10월 중 10~13주 동안 실시한다. 박사과정을 마친 대학원생이 응모한다면 최상일 것이다. 매년 세계 각국에서 400명이 응모하는데, 약 40명이 채용된다. 채용되면 워싱턴까지의 왕복티켓과 월 3,000달러의 수당이 지급된다.

⑤ OECD의 인턴십

무급을 조건으로 OECD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의 일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몇몇 회원국(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덴마크)의 행정부와 협력한 특별한 정부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⑥ World Bank Group의 지식경영 인턴십 프로그램(Knowledge Management Intern Program : KIP)

워싱턴 DC 지역의 선택된 대학의 일부 대학원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주제별 팀 구성원과 함께 서로 배우고 환경을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 지식을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TG(Thematic groups)는 세계은행 전문가협회의 핵심이다. TG 지도자들이 인턴의 지식 경영 능력을 관리한다. 학생들의 학과 지도교수도 멘토링의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서로 조언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기 중에 실시된다. 일, 업무 기간, 작업 시간과 시작일 등은 학생, 교수, 관련 TG 지도자 사이의 동의하에 결정된다. 일부 대학은 KIP 활동 기간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은 워싱턴 DC의 세계은행 본부에서 이루어진다. 때때로 가상 근무의 기회도 제공된다.

활동 내용은 (1) 신문, 웹사이트 또는 다른 통신매체로 출판하기 위해 잠재적 지식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종합, (2) TG 지도자를 도와서 웹사이트의 관리 및 개발, (3) 지식 경영 사업에 관한 보도와 배경 자료 준비, (4) 기사나 논문 자료, 최선의 전문활동의 조사, 출판, (5) 지식 자원을 범주화하고 웹상에 올림, (6)

특별한 지식 활동의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서 교정 작업을 제안, (7) TG 구성원과 함께 지식 경영 주도권을 확보하고 인지된 부가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협의 작업, (8) 세미나 준비에 참여, (9) 기구 내외의 주요 인사들과의 가상 토의 조직 등이다. 이처럼 학습 경험을 쌓도록 조직되었으며, 학습 경험의 일부는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학, 교육학, 에너지, 광업, 전기 통신학, 정보과학, 환경, 재정, 성, 공중위생, 영양학, 인구, 법률과 개발, 빈곤 퇴치, 사회복지, 사회 보호, 운송 수단, 도시 개발 등의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이 외에 기본적인 PC 사용 능력(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과 뛰어난 작문 실력 및 회화 실력, 마감 기간을 엄수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완벽한 통계처리 능력,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유머 감각을 지닌 팀원으로서 원만한 인간관계 능력, 다양한 활동을 동시에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도 갖추어야 한다.

3. 서울시 인재양성 방안

1) 대학교 교육연계 양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기구의 자격요건은 대부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며 박사학위 소지자가 유리하게 되어 있다. 또한 석사학위 소지자라 하더라도 3년 이상 또는 실전경험을 요구하는 국제기구가 대부분이다. 결국 국제기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와 연계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학졸업 이후보다 학사과정부터 진로를 결정하여 대학원에 진학해 국제기구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는 대학을 통해 국제기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으로 국제기구를 준비하는 인재들에게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2) 언어교육 강화

앞에서 제시한 국제기구의 자격요건 대부분이 외국어 능력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영어만 능통하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다양한 국제기구의 성격과 소속된 국가만큼 업무수행을 위한 다양한 언어를 습득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2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국제기구 관련 외국어학원 및 전문기관을 만들어 영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필요한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실전영어를 습득하기 위한 현장체험 학습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국제기구의 이해를 위한 홍보 및 정보의 제공

막연하게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막연한 질문이 올라오고 있다.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가 서울시민에게 국제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국제기구의 정의와 활동하기 위한 기본조건 및 활동하는 인재들에 대한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해야 국제기구 인재양성 시스템을 체계화시킬 수 있다.

4) 인력관리 시스템 확보

국제기구의 자격조건 및 운영현황을 보면 모두 다른 체제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 안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활동하게 되면서 국제기구라는 광범위한 범위만큼 신상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양성된 인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의 능력에 맞는 국제기구를 제공해야한다. 국제정세나 여건에 의해 인재의 능력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5) 학계, 공공기관 민간 연계시스템 마련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기구의 자격요건 대부분이 석사학위 소지와 실전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전경험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는 단지 학위만을 가지고 국제기구를 지원하기에는 힘들고 졸업 이후 실제적인 관련 업무 수행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서울시는 학계 및 공공기관 또는 민간시스템을 연계하여 국제기구 지원자들에게 실전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도 글로벌 교육을 받은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기회 제공이라는 시너지 효과도 창출될 수 있다.

제5장 국제회의 활성화

제1절 국제회의 개최 현황 및 실태

제2절 우리나라 국제회의 개최계획 조사

제3절 서울시 국제기구 주요활동

제5장 국제회의 활성화

국제기구 유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가 가능한 분야의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계획 중인 국제회의를 조사하여 수요조사를 대신(Proxy)한다. 구미선진국의 경우 국제기구가 주도하여 대부분의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의 활성화를 통한 국제기구 유치방안을 모색한다.

국제회의에 대한 조사는 2008년~2010년 기간 중 국내에서 계획 중인 국제회의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서울에서 국제기구로 발전가능성 있는 분야를 파악한다.

조사기준은 시정(서울시 핵심사업), 순환(매년 주기적 개최여부), 중앙정부(중앙정부 주도 및 참가), 고유(국내적 특화) 등 정책기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우선 다음 절에서는 국제회의 개최현황 및 실태를 세계적 측면, 지역적 측면으로 살펴본다.

제1절 국제회의 개최 현황 및 실태

1. 세계 국제회의 개최 현황

국제회의의 유치현황을 대륙별 즉 유럽,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대양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회의를 가장 많이 유치한 대륙은 유럽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특히 2003년과 2004년에는 국제회의 유치 건수가 약 6000건이 넘었다. 2006년에는 유치건수가 5,245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것도 다른 대륙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은 것이다.

<표 5-1> 대륙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유럽	5998	6445	6136	5692	5245
미주	2106	2352	2226	2037	1640
아시아주	1381	1309	1549	1567	1353
아프리카주	525	545	534	469	399
대양주	339	339	340	285	234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7)

국가별로 국제회의 유치현황을 살펴보면, 유엔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이 단연 1위다. 2006년에 다소 국제회의의 개최건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이 2, 3위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이 9위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 10위권에 드는 나라는 싱가포르뿐 이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 14위, 한국 16위, 일본 18위로 1개국도 10위권에 속하지는 못했다.

전체적으로 국제기구를 다수 유치하고 있는 국가가 국제회의의 유치에서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 아시아 국제회의의 개최 현황

아시아를 중심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회의의 개최현황을 살펴본 결과, 싱가포르가 2002년 142회를 시작으로 2006년 298회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1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2002년 84회를 시작으로 2006년 89회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2위를 차지했다. 베이징, 도쿄, 방콕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과 제주가 2006년을 기준으로 각각 37회, 33회의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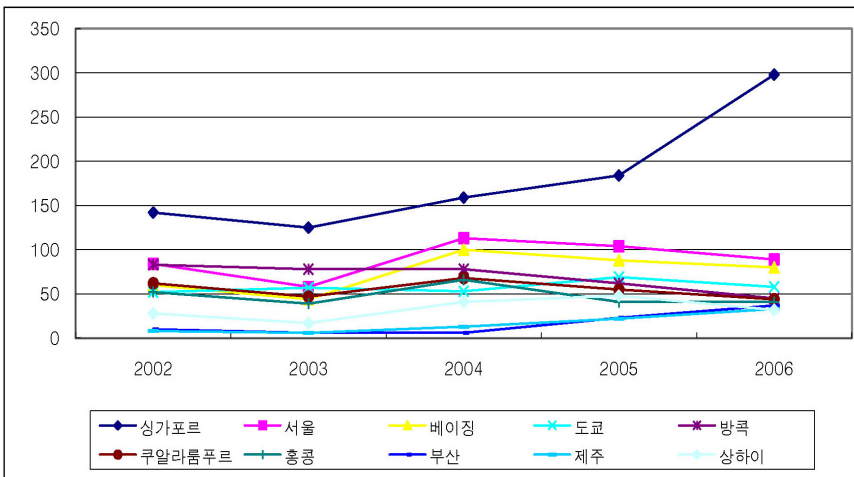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비록 아시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위 싱가포르와는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표 5-2> 아시아 주요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

국가	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싱가포르		142	125	159	184	298
서울		84	58	113	104	89
베이징		60	44	100	88	80
도쿄		52	57	53	69	58
방콕		83	78	78	62	45
쿠알라룸푸르		62	47	68	55	44
홍콩		52	39	66	41	41
부산		10	6	6	23	37
제주		8	6	13	22	33
상하이		28	17	41	48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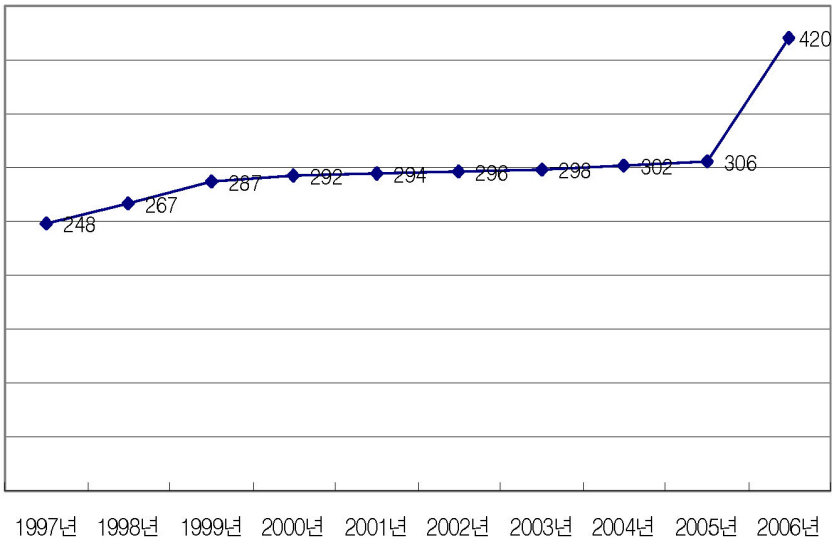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7)



<그림 5-1> 아시아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건수 변화

3. 국내 국제회의 개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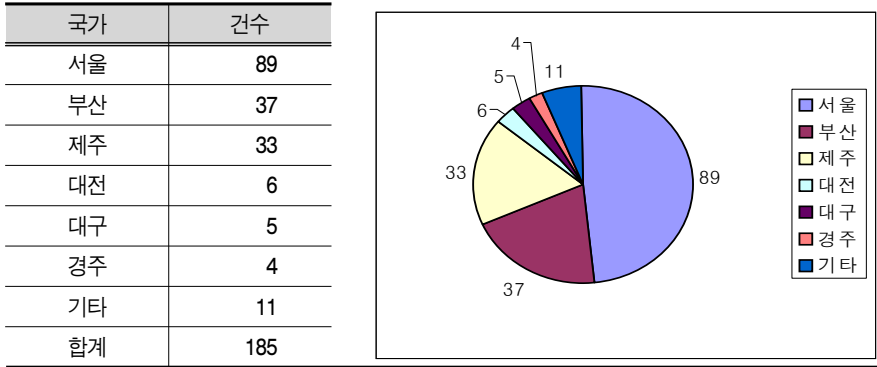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다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아주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최근까지 자치단체별로 국제회의 유치에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서울이나 대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도 국제회의 유치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2> 연도별 국제회의 개최건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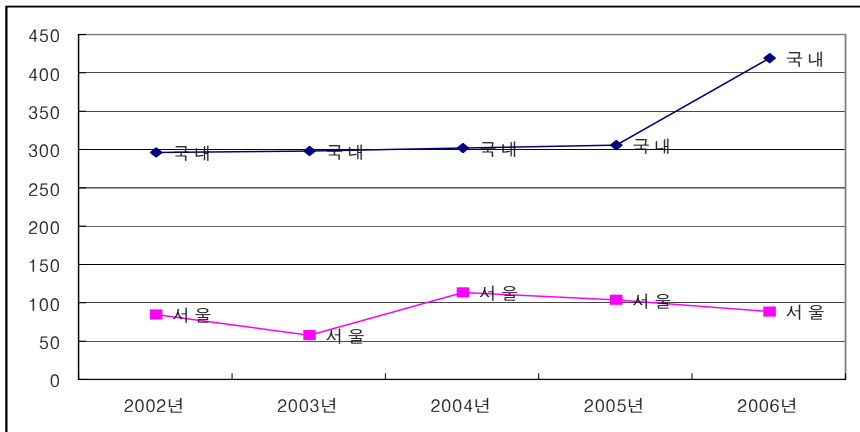
국내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현황을 2006년을 기준으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서울이 89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부산으로 37개였다. 제주 또한 부산과 비슷한 33개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밖에 대전, 대구, 경주가 소규모지만 국제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국내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2006)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7)

하지만 서울이 개최한 국제회의가 2005년과 2006년에 감소한 것을 앞에서 제시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내 국제회의는 늘어났지만 서울이 유치하는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울에서 유치된 국제회의가 일부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5-3> 연도별 국내와 서울 국제회의 개최건수 변화 비교

제2절 우리나라 국제회의 개최계획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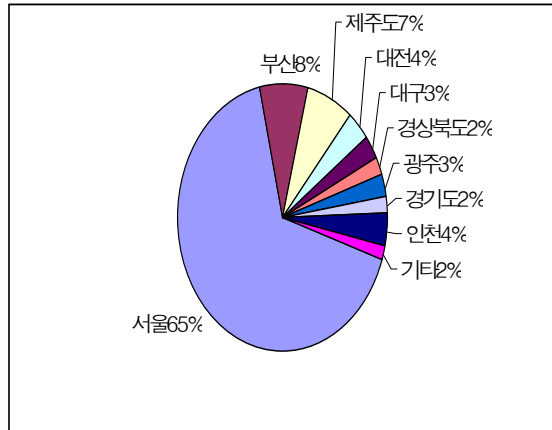
1. 일반 특성별 현황

1) 지역별 개최 현황

2008년~2010년 기간의 국제회의 유치계획을 조사한 결과, 서울이 122개, 부산이 14개, 제주도가 13개, 인천과 대전이 각각 7개를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대구와 광주가 5개, 경상북도와 경기도가 각각 4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현황은 국제회의의 예약이 완료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4> 향후 국제회의의 지역별 개최 현황

지역	빈도
서울	122
부산	14
제주도	13
대전	7
대구	5
경상북도	4
광주	5
경기도	4
인천	7
기타	3
합계	184



2) 국제기구의 유무

정부 및 비정부국제기구에 소속되어 추진된 국제회의는 82개로 4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에 속하지 않고 개최되는 국제회의도 102개로 55.4%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기구가 추진한 국제회의의 경우 국제기구의 지역적 커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광역별 국제기구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등 아시아 측에서의 국제기구는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아시아 사무소(branch)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

국제기구가 없이 추진한 국제회의의 경우 성격별로 파악하여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드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

<표 5-5> 국제회의 국제기구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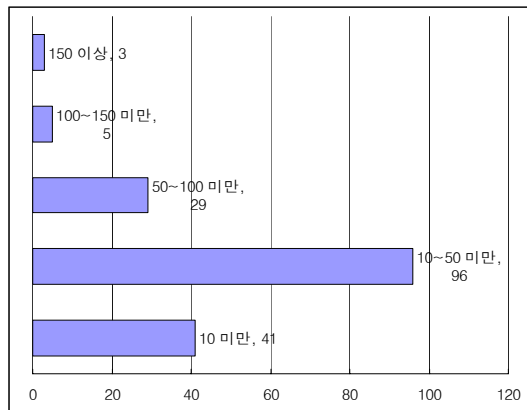
국제기구유무	빈도	%
없음	102	55.4
있음	82	44.6
합계	184	100.0

3) 회의 규모

국제회의 참가국 규모의 경우 10~50개국 미만인 5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0개국 미만이 23.6%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뒤로 50~100개국 미만 16.7%, 100~150개국 미만 2.9%, 150개국 이상 1.7%의 순이었다.

<표 5-6> 국제회의 참가국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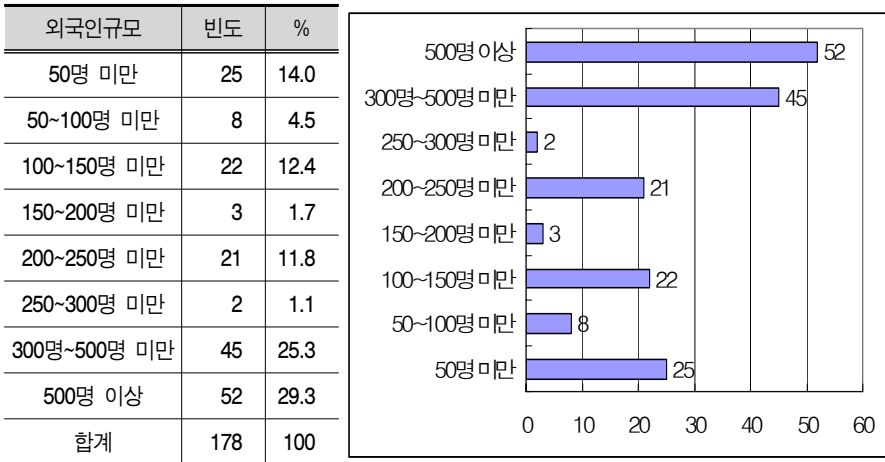
참가국 규모	빈도	%
10개국 미만	41	23.6
10~50개국 미만	96	55.2
50~100개국 미만	29	16.7
100~150개국 미만	5	2.9
150개국 이상	3	1.7
합 계	174	100



4) 외국인 참가 규모

국제회의를 국제기구로 발전시킬 경우 외국인의 참가비율도 적지 않게 중요하다. 많은 외국인사가 참여할 경우 그만큼 국제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해외인적네트워크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규모를 살펴보면 500명 이상이 2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00~500명 이상이 25.3%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뒤로 50명 미만 14.0%, 100~150명 미만 12.4%, 200~250명 미만 11.8%의 순이었다.

<표 5-7> 국제회의의 외국인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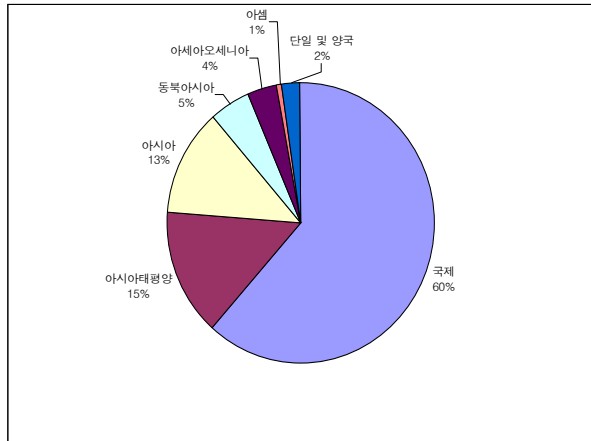
5) 공간적 범위

지역적 범위의 경우 국제적 규모 회의가 113회로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태평양 및 아시아 규모회의가 각각 27회, 23회로 나타났다. 동북아시아 규모회의가 9개, 아세아·오세니아 규모회의가 7개 등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국제회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참가국의 경우, 10개국 이하와 50개국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명칭만 국제로 사용하는 회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국제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및 아시아지역 규모의 국제회의가 오히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국제기구보다는 기존 국제기구의 사무소역할이 보다 유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표 5-8> 국제회의의 공간적 범위

지역	빈도
국제	113
아시아태평양	27
아시아	23
동북아시아	9
아세아오세니아	7
아셈	1
단일 및 양국	4
합계	184



2. 정책 기준별 현황

이상의 국내에서 개최 계획 중인 국제회의를 통하여 특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보았다. 다음은 기준별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기준은 시정, 순환, 고유, 중앙정부로 구분하였다.

시정은 서울시에서 최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조사하여 하부 카테고리로 나누어 이에 관련되는 국제회의를 표시하였다.

순환은 한번 개최되었거나 일시적인 성격의 국제회의를 제외하고 1회부터 계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국제회의를 조사하여 횟수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고유는 서울시 및 국내의 정치, 문화, 사회 등의 고유한 성격을 가진 국제회의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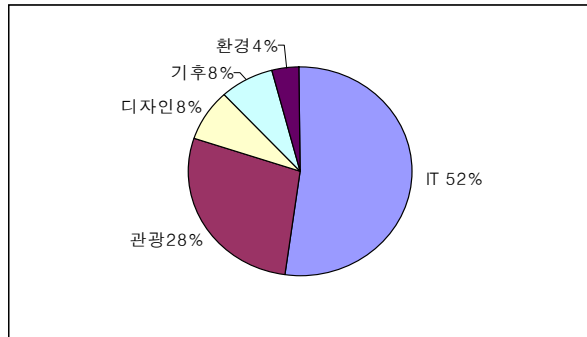
중앙정부는 개최계획 중인 국제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주최하거나 관여하는 국제회의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제기구 및 회의의 경우 가장 중요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원체제로 볼 수 있는 중앙정부를 성격분류 기준에 포함했다.

1) 시정관련 국제회의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IT, 관광, 디자인, 기후, 환경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조사한 결과 IT정책과 관련한 국제회의가 13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광 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가 7개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디자인 및 기후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가 2개씩 나타났으며, 환경관련 국제회의도 1개가 있었다.

<표 5-9> 서울시 주요시정별 구분 현황

주요시정	빈도
IT	13
관광	7
디자인	2
기후	2
환경	1
합계	25



결과적으로 IT정책과 관련한 국제회의가 가장 많은 것은 IT강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도 큰 역할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그 중심역할을 한 서울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IT에 관련한 국제기구로 국제기구 산하기구인 아·태정보통신기술통신교육훈련센터(APCICT)가 인천송도에 유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 IT관련 국제기구를 분석하여 산하기구 및 본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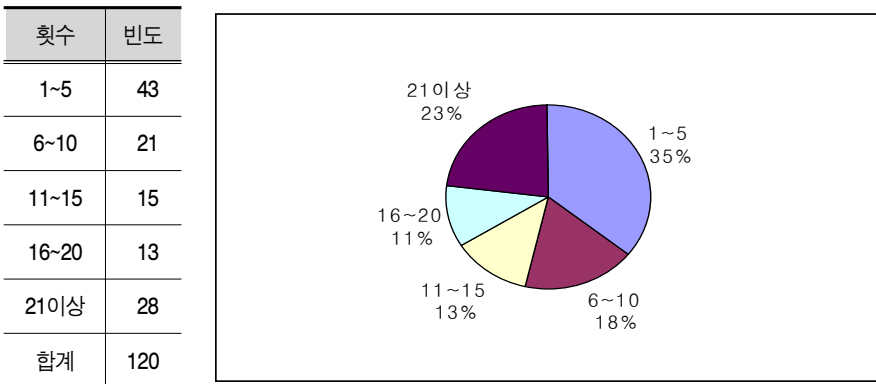
관련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비록 인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지만, 다양한 IT기술만큼 국제기구유치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서울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핵심정책이 기후 및 디자인으로, 디자인의 경우 관광과 자연스럽게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다. 서울이 현대 디자인의 메카가 되기 위하여 이에 관련한 국제기구 유치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국제기구 유치와 맞물려 디자인중심 정책 추진에 가속도를 낼 수 있으며, 현재 디자인관련 행사와도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기후정책의 경우 지리적 입지조건을 강조하여 동북아 및 동북아 일대의 기후관련 국제기구 유치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2) 순환적 국제회의

순환적 국제회의를 횟수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면, 1회에서 5회까지의 국제회의가 43개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6회에서 10회까지의 국제회의도 21개로 23%로 나타났다. 그리고 11회에서 15회까지가 13%, 16회에서 20회까지가 11%의 순이었다.

<표 5-10> 순환적 국제회의



순환적 국제회의의 특성은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경우 국제기구로 발전시켜야할 당위성이 커짐과 동시에 이처럼 고정적인 성격의 국제기구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정기적인 국제회의를 확보할 수 있다는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 국제기구에 속한 순환 국제회의의 경우 지역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산하기구를 통해 국제기구 유치가 가능하며, 국제기구가 없는 국제회의의 경우 새롭게 유치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국제기구가 주도하지 않은 국제회의가 순환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 5-11> 국제기구 유무별 순환 횟수

구 분		순환횟수					전체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이상	
국제기구	유	21	6	6	6	17	56
	무	22	15	9	7	11	64

국제기구가 없이 국제회의가 개최된 횟수를 보면, 9개의 국제회의가 11~15회, 7개의 국제회의가 16~20회, 11개의 국제회의가 21회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국제기구가 없이 10회 이상 개최되는 국제회의는 모두 27개로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 개최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10년 이상 개최된 셈이다. 10년 동안 주기적으로 개최된 국제회의의 경우 그만큼 필요성과 정당성이 높은 만큼 국제기구로 추진할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참가국별 국제기구의 유무를 살펴본 결과이다. 15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는 국제기구가 있었으며, 3개의 국제회의가 국제기구를 가지고 있었다. 100~150개국 미만의 경우 국제기구가 없는 회의는 3개, 국제기구가 있는 회의는 2개로 나타났다. 50~100개국 미만의 경우 국제기구가 있는 회의는 14개, 국제기구가 없는 회의는 15개로 조사됐다. 10~50개국 미만의 경우 국제기구가

있는 회의는 50개, 국제기구가 없는 회의는 40개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12> 참가국 규모별 국제기구 유무

구 분		국제기구 유무	
		유	무
참가국	10개국 미만	10	31
	10~50개국 미만	50	46
	50~100개국 미만	15	14
	100~150개국 미만	2	3
	150개국 이상	3	3

외국인이 500명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경우 21회 이상이 10개로 나타났다. 또한 16~20회 이상이 9개, 11~15회가 5개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해 500명 이상의 외국인이 같은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21회 이상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200명~500명 미만 참가하는 국제회의도 21회 이상이 10개가 있었으며, 10~20회도 9개가 있었다. 국제기구를 유치할 때 가입국이나 회원국의 허가 및 확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기적인 해외인사들의 방문은 크게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표 5-13> 국제회의의 외국인 규모별 순환 횟수

구 분		순환횟수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이상
외국인	50명 미만	4	5	2	0	4
	50~100명 미만	2	0	1	0	1
	100~150명 미만	4	1	1	0	3
	150~200명 미만	2	0	0	0	0
	200~250명 미만	6	4	0	1	4
	250~300명 미만	0	1	0	0	0
	300명~500명 미만	13	5	5	3	6
500명 이상	9	5	5	9	10	

3. 개최계획 조사결과

교차분석은 시정, 순환, 고유 중앙정부 정책기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정에 관계된 국제회의가 25개, 순환의 성격을 가진 국제회의는 120개, 고유의 성격을 가진 국제회의는 14개, 중앙정부가 관여한 국제회의는 18개로 나타났다.

제시된 기준들은 단독적으로만 나타나지 않았다. 기준이 중복되어 제시된 국제회의도 22개이었으며, 그중 3개는 제시된 기준이 3개나 중복되었다. 중복에 의미를 둔다면 그만큼 국제기구로 승화시킬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 현재 중점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순환적인 성격의 국제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국제회의를 조사할 의미가 크다는 점이다.

먼저 서울시 중점정책이면서 순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제회의는 총 8개로 나타났다. 순환적이면서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지거나 주최한 국제회의가 6개였으며, 순환적이면서 국내 또는 서울시의 고유한 성격이나 기술을 가진 국제회의도 4개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중점정책이며, 순환적 성격과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지거나 주최한 국제회의가 2개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중앙정부가 개최하거나 관여하면서 고유 성격이나 기술을 가진 국제회의가 1개, 서울시 중점정책이며 순환, 고유의 성격을 가진 국제회의가 1개로 나타났다.

<표 5-14> 교차분석 조사결과

분류	회의명
시정·순환	제13차 아시아태평양실계지동화 학술대회
	제3회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포럼 (The 3rd Scientific Conference on Asia-Pacific Environment and Health)
	제9회 국제나노심포지엄
	제64차 한국관광학회 부산국제학술심포지엄
	제24차 한대만관광교류회의
	제3차 C40 기후리더십 그룹국제회의
	제9차 관광진흥회의
	씨티넷교통전략세미나

<표 계속> 교차분석 조사결과

분류	회의명
시정·중앙정부	2008 인터넷경제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아·태관광투자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ICANN연례회의
순환·고유	제14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제2회 노인요양병원·노인용양시설국제세미나
	제3회 세계실버산업현황 및 진출전략세미나
순환·중앙정부	제4회 세계전류흐름과 방식에 관한 국제회의
	국제검사협회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제24차 아시아·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 연차총회
시정·순환·고유	제22회 국제액정학술대회
시정·순환·중앙정부	제3차 한·중·일 관광장관회담
	2008 국제산업정보공학술대회

1) 시정·순환적 국제회의

<표 5-15>를 보면 7개의 국제회의가 조사되었다. 먼저 “제64차 한국관광학회부산국제학술심포지엄”은 부산에서 유치되었으며, 관광분야는 서울시의 시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 심포지엄에는 10개국에서 20명의 외국인 등 650명이 참석하였다. “제24차 한·대만 관광교류회의”는 서울 관광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 회의의 범위는 양국관계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국제기구로 발전시키기에는 규모면에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씨티넷 교통전략세미나”는 서울시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태지역과 관련된 교통환경을 다루고 있다. 이 세미나는 서울시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시정·순환조사에서는 서울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제3차 C40 기후리더십 그룹국제회의”를 국제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보다 비중을 둘 수 있다.

<표 5-15> 시정·순환국제회의 개최계획

회의명 (순환횟수순위)	지역	시정	지역별 커버정도	참가국 (개)	외국인 (명)	참가자 (명)	국제기구 유무
2008년 제64차 한국관광학회 부산국제학술심포지엄	부산	관광	국제	10	20	650	유
2009년 제24차 한·대만관광교류회의	서울	관광	단일	2	30	60	무
2008년 제13차 아시아·태평양설계지동화학술대회	서울	IT	아시아 태평양	15	400	700	무
2008년 제9회국제나노심포지엄	경주	IT	국제	6	12	204	무
2008년 제9차 관광진흥회의	서울	관광	국제	15	100	250	무
2008년 제3차 C40 기후리더십 그룹국제회의	서울	기후	국제	15	300	480	무
2008년 제3회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포럼	제주도	환경	아태	15	250	500	무
2008년 씨티넷교통전략세미나	서울	환경	아태	10	40	60	유

2) 시정·중앙정부

시정·중앙정부의 조사결과 “아·태관광투자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를 제외하고 “2008 인터넷경제 미래에 관한 OECD장관회의”, “ICANN연례회의”는 국제기구의 주최로 유치되었다. “2008 인터넷경제 미래에 관한 OECD장관회의”는 서울의 IT정책과 관련이 있지만 그 규모로 보면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유치하기보다 중앙정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치할 수 있다. 국제기구가 있는 이 두 회의의 동북아 및 아·태를 특정지역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고려해야 한다.

<표 5-16> 시정·중앙정부 개최계획

회의명	지역	시정	중앙정부	지역별 커버정도	참가국 (명)	외국인 (명)	참가자 (명)	국기기구 유무
2008 인터넷경제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서울	IT	방송통신 위원회	국제	47	1,500	2,500	유
2008년 아·태관광투자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서울	관광	문화관광부	국제	24	100	1,500	무
2008년 ICANN연례회의	서울	IT	한국인터넷 진흥원	국제	50	800	1,000	유

3) 순환·고유

순환·고유의 조사결과 “제3회 세계실버산업현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제회의가 없다. 제7차 세계침구학회연합회 회원총회 및 국제침구학술대회”의 경우 국제기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침구기술은 한국, 중국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국제기구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제2회 노인요양병원·노인용양시설국제세미나”, “제3회 세계실버산업현황 및 진출전략세미나”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시급한 사안으로 국제기구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4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는 가야라는 국내성격으로 한정되어 있고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자문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또한 노인 및 실버에 관련한 두 개의 국제회의의 경우 광주에서 주최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인 만큼 서울에서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표 5-17> 순환·고유 개최계획

회의명 (순환횟수순위)	지역	지역별 커버정도	참가국 (명)	외국인 (명)	참가자 (명)	국기기구 유무
2008년 제14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김해	국제	3	50	2,050	무
2008년 제3회 세계실버산업현황 및 진출전략세미나	광주	국제	2	25	151	무
2008년 제2회 노인요양병원·노인용양시설국제세미나	광주	국제	3	36	457	무

4) 순환·중앙정부

순환 및 중앙정부가 주최하는 국제회의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가입하기 보다 중앙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회의들은 중앙정부 지원적 측면에 국제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 “국제검사협회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는 중앙정부의 성격이 무엇보다 큰 점으로 미루어 중앙정부의 동향과약을 주체적 입장이 아닌 지원적 입장으로 전략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표 5-18> 순환·중앙정부 개최계획

회의명 (순환횟수순위)	지역	중앙	지역별 커버정도	참가국 (명)	외국인 (명)	참가자 (명)	국기기구 유무
2008년 제24차 아시아 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 연차총회	서울	한국산업 안전공단	아·태	21	200	700	유
2008년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서울	한국산업 안전공단	국제	21	200	700	유
2008년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	제주	기획재정 부	국제	40	200	500	유
2008년 국제검사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서울	검찰청	국제	-	-	-	유

5) 시정·순환·고유 및 시정·순환·중앙정부

“제22회 국제액정학술대회”의 경우 서울시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액정기술력은 높이 평가받고 있어 국제기구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관련 국제기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3차 한·중·일 관광장관회담”회의는 비록 순환 및 시정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나 중앙정부가 그 위치를 주도해야 할 사항이므로 지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표 5-19> 시정·순환·고유 및 시정·순환·중앙정부 개최계획

구분	회의명 (순환횟수순위)	시정	지역	중앙	지역별 커버정도	참가국 (명)	외국인 (명)	참가자 (명)	국기기구 유무
시정·순환· 고유	2008년 제22회 국제액정학술대회	IT	제주도	-	국제	15	140	300	무
시정·순환· 중앙정부	2008년 국제산업정보공학 학술대회	IT	대전	한국과학 기술원	국제	40	300	500	유
	2008년 제3차 한·중·일 관광장관회담	관광	부산	문화체육 관광부	동북	3	350	500	무

4. 국제회의의 활성화를 통한 국제기구 유치

국제회의를 교차분석한 결과, <표 5-20>과 같이 총 11개의 국제회의가 도출되었으며, 기후변화, IT산업, 관광, 환경, 산업안전의 총 5개의 유치가능분야가 나타났다. 조사된 유치가능 분야는 여건에 따라 신설 및 이전유치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국제기구를 신설한다는 점과 이전하여 유치한다는 점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특정지역 범위로 동북아시아이나 넓게는 아시아, 아시아·태평양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표 5-20> 개최계획 조사결과

회의명	국제기구 종류
C40 기후리더십 그룹국제회의	기후변화
제13차 아시아·태평양설계자동화학술대회	IT산업
제22회 국제액정학술대회	
국제산업정보공학학술대회	
ICANN연례회의	관광
제9차 관광진흥회의	
아·태관광투자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제64차 한국관광학회 부산국제학술심포지엄	환경
제3회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포럼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제24차 아시아·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연차총회	산업안전

1) 기후변화분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세계적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국가들이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일부 국가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많은 국가들이 국제활동을 통하여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 대응방안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변화하는 사회 및 자연환경의 영향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다. 현재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중심으로 그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기후변화의 영향이나 변화결과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조직구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이 기후변화에 대한 특정지역담당 기구 및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그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기후변화문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므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명박대통령도 기후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바, 관련 국제기구의 유치에 충분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국제회의의 활성화측면에서도 2008년 C40 기후리더십그룹국제회의가 도출되었다.

이 회의의 공식명칭은 C40 Climate Leadership Group(C40 기후리더십 그룹)이며, 설립목적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내외를 차지하는 대도시들이 전 세계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기후리더십 그룹국제회의는 국가와 정부차원이 아닌 전 세계 대도시의 자발적인 모임이며, 산업 및 인구의 집중으로 인하여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도시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05년 Ken Livingstone 당시 런던시장의 주도아래 설립되었다. 이 회의는 2005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18개 세계 대도시 대표들의 모임으로 시작하였다. 2006년 8월 클린턴재단과 Large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간의 파트너십 이후 C40라고 개명되었다. 2007년 5월 미국 뉴욕시에서 51개 세계 대도시 대표들이 2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2008년에 3차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현재는 정회원 40개 도시, 준회원 15개 도시이며 서울은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요정책 중 하나가 기후변화대응인 만큼 국제회의를 통한 경험이나 인적네트워크를 통하여 국제기구를 추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IT산업분야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는 점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서울은 세계전자정부평가에서 2005년, 2006년 2회 연속 1위를 달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서울이 IT와 관련된 국제기구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보 및 지식의 선진대열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IT 강국이라는 점은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IT뿐만 아니라 기타 첨단산업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관련한 국제기구를 유치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제13차 아시아·태평양설계자동화학술대회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국제적인 범위의 회의로 15개국에서, 외국인 400명 등 총 700명이 참석했다. 제22회 국제액정학술대회의 경우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으나 순환적 성격으로 장소는 큰 의미가 없다. 이 회의 역시 국제적 범위의 회의로 15개국에서 외국인 140명 등 총 300명이 참석했다. 두 회의 모두 국제기구가 없이 개최되었는데, 특히 국제액정학술대회의 경우 우리나라의 액정산업이 세계적 수준이므로 국제기구유치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제산업정보공학학술대회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지원으로 대전에서 유치되었으며, 40개국에서 외국인 300명 등 총 500명이 참가했다. ICANN연례회의는 한국정보통신위원회의 지원으로 서울에서 유치될 예정이며, 50개국에서 외국인 800명 등 총 1,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연례회의의 경우 인터넷에 깊이 관련한 국제회의로 IT강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정립에 큰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00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인터넷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ICANN은 IP주소뿐만 아니라 ‘.kr’과 같은 국가 최상위 도메인과 ‘.com’, ‘.net’의 일반최상위도메인 관련 정책과 기술을 결정하는 비영리기구이며, 정례회

의는 지난 1999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연 3회 대륙별로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2년여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준비했으며, 지난 6월 OECD 서울 장관회의에서 정례회의 서울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의 결과로 평가된다.

2009년 10월25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회의에는 각국의 정부대표, 세계지적 재산권관리기구(WIP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의 국제기구, 최상위 국가도메인(ccTLD) 관리기관, 도메인관련 비즈니스 업체, 시민사회, 민간 등 100여 개국에서 1천여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 일반 최상위도메인(“.family”)과 다국어 도메인(“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 도입을 논의한다는 관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관광분야

관광분야 국제기구는 현재 많은 국제기구가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가 중대사업으로 관광에 관련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포화상태인 현실에 맞지 않다. 현실적으로 서울이 관광과 관련한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지역(베이징 - 서울 - 도쿄) 구축의 중간전략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국제회의 대부분은 외국인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며 참가자 규모도 9차관광진흥회의의 250명을 제외하고는 500명 이상의 대규모다. 특히 제3차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및 아·태관광투자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의 경우 범위가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관광분야 국제기구를 제안할 때는 한 개의 국제회의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보다는 유치될 국제회의들을 활용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중심 국제기구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환경분야

환경관련 국제기구는 현재 다른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하여 국제기구를 유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결국 특정지역별로 한정하여 국제기구를 유치해야 하며, 특히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제3차 아시아태평양 환경포럼”은 제주도에 유치되었다. 지역별 범위는 아시아·태평양으로, 15개국에서 외국인 250명 등 총 500명이 참석한다. 이 회의의 범위도 국제기구 유치의 현실적 상황과 맞는 아시아·태평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의 특성이 한 국가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가와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성적 지역범위는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측면이다. 따라서 이 회의를 활성화하여 아시아·태평양 담당의 국제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5) 산업안전분야

현재 산업안전과 관련한 국제기구는 국제노동기구(ILO)이며 기존에 설립된 국제기구의 정세를 파악하여 이전 시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 범위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유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는 서울에 유치되었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열리며 아시아·태평양의 지역범위로 21개국에서 외국인 300명 등 총 2,500명이 참가한다. 제24차 아시아·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연차총회의 경우 서울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개최하며 22개국에서 외국인 300명 등 총 700명이 참가한다.

이들 회의의 동시개최가 가능할 만큼 한국이 국제적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기구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제3절 서울시 국제기구 주요활동

앞에서 국내의 국제회의 분석을 통하여 국제기구로 발전시킬 요소를 도출하여 보았다. 하지만 국제회의만으로 국제기구유치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미흡할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요활동 및 주변여론이나 환경을 통해 제안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의 주요활동은 국내활동과 국외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특히 국외활동의 경우 국제기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국내활동

1) 문화·예술

서울시는 도시경쟁력방안의 하나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에 마케팅할 수 있는 문화명품을 발굴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매력적인 서울을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한국 및 서울의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이다. 서울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서울시의 문화·예술 추진방향은 첫째, 권역별 창작공간 조성 및 기업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원인프라 구축, 둘째, 거리벽화, 조각설치 등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를 통한 모든 생활공간의 문화화, 셋째, 장르별 균형 있는 지원정책을 통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 넷째, 전문예술인, 아마추어를 포함한 다양한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실시의 4개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는 창작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남산 문화예술 창작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자치구 문화·공공시설을 예술창작 활동의 거점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모든 생활공간의 문화화를 위해 거리벽화 모델사업, 조각 등 입체미술 설치 모델사업, 기업, 대학, 예술단체, 문화예술 창작소 입주 예술가 등 민간참여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원 유치를 기본으로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문화·예술사업과 병행하여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역사관련 문화재 복원 및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상호연계하여 문화·예술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디자인

서울시는 최근에 디자인과 관련한 정책 및 각종 행사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현대디자인을 통하여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디자인 관련 국제행사도 개최하여 국제디자인 도시로서의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시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디자인과 접목하여 동대문일대를 세계 디자인·패션중심지로 제안하고, 디자인 패션산업 Platform을 조성하며, 디자인패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패션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첫째, 동대문 디자인·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지원 및 운영 준비, 서울 디자인 플라자 건립 (패션·디자인 랜드마크), 서울패션센터 및 서울패션아트홀 운영 (2006. 9. 21개관), 첨단의류 기술센터 건립, 지하문화광장 조성(20m이내, 연장 435m)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디자인·패션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산업디자인 활성화 지원, 디자인산업 활동지원, 전문인력 양성, 제2회 World Design Capital 지정 추진, 「세계디자인수도(World Design Capital) 서울 2010」 추진, 패션 의류산업 활성화 지원, 서울컬렉션을 세계 5대 컬렉션으로 육성, 인력양성, 중소 패션업체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서울 디자인 업그레이드 자문단(가칭)」 운영,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 추진조직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현대디자인 위주의 개발을 통해 국제행사를 개최하거나 주요사업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기구로 발전시켜 서울시를 디자인 중심도시로 확고하게 다지는 점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인과 같은 예술적 측면에 있어서는 정부간 국제기구보다는 자치단체별 비정부간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국제행사의 유치에 보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동양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현대 디자인을 도시환경에 접목하여 활용한다는 점을 크게 강조하면 특정지역(아시아)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다.

3) 녹색도시

서울시는 맑고 푸른도시의 일환으로 녹색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토의 70%가 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서울시는 주변의 산림보전 및 도시내부의 녹색공간 마련을 핵심전략으로 하고 도시디자인 및 문화예술활동과 함께 도시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생활녹지를 중심으로 단절된 녹지축 복원, 생활권 주변녹지 및 공원 확충, 자연생태복원 및 생태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활녹지 및 산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질개선사업으로는 선진국수준으로 대기질 개선, 경유차 저공해화로 배출가스 발생 획기적 저감, 먼지없는 도로조성을 위한 물청소 확대, 생활환경 및 대기질 개선 기반 조성, 시민 참여 확대 및 수도권 3개 시·도 공동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녹지관련사업 추진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접목으로 교통, 공장시설, 생활오염 등의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산림지역과 도시환경의 접목은 앞으로 다가올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며, 이에 관련한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국제도시의 녹색사업 추진 활동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도시녹지조성에 관련한 국제기구의 추진 범위는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부터 시작하여 전 지구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현실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2. 국외활동

1) CITYNET

1982년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유엔인간정주센터(UNCHS)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아·태지역 인간정주 개발을 위한 지방정부 지역 총회에서 지방정부 간의 효율적인 연계망을 구성하자는 선언문(요코하마선언)을 통해 1987년 제2차 회의에서 CITYNET을 창설하였다.

설립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내의 개별도시, 자치단체연합, NGO를 연계한 다자 간 Network 형성,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인간정주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의 상호교류 진흥에 있다.

현재는 정회원 67개 도시, 준회원 40개 도시로 총 107개의 도시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는 4년 주기, 집행위원회는 매년, 세미나는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기술지원사업으로는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기술고문과 지원사업을 알선하였으며, 공무원 연수를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NGO 소속위원의 단기연수를 알선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공동연구로는 개별정책 사안별로 합작연구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정보 제공을 통해 효율적 도시개발 및 인간정주관리사례의 수집·분석 및 DB를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도 1989년 1차총회 때 가입하여 정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 9월에는 교통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의 사례를 교통발전의 모델로 삼고자 하는 아·태지역 10개국의 40여명과 부산·광주 등 국내 지자체 공무원 20여명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서울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통정책’, ‘지능형 교통체계’, ‘교통수요관리’의 세션을 통해 정책 추진 경험과 관련 기술소개 등 교통체계 전반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카드, 첨단 교통정보센터, 친환경 버스제작과 관련 사업에도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이 교통선진도시로서 성공적인 교통개편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교통발전에 대

한 비전을 제시해 아시아 교통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CITYNET으로부터 받았다.

현재 CITYNET은 고정적인 지역별 기구가 없이 순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이 국제기구로 유치할 수 있도록 회원국과의 활발한 교류와 적극적인 국제활동을 통해 서울지역에 고정적인 기구로 유치할 수 있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2) 메트로폴리스

메트로폴리스는 도시 개발, 환경 보전, 경제 개발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1985년 설립된 세계 대도시들의 교류 협력 기구이다. 현재 104개 도시가 가입해 있으며 서울은 1987년 회원이 되었다.

구체적인 설립목적으로는 세계대도시의 당면한 공동문제 해결과 대도시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도시발전 도모이다.

1999년 메트로폴리스 바르셀로나 총회에서 2002년 이사회의 서울 개최가 결정되어 외국인 94명, 내국인 163명 등 총 257명이 참가해 도시발전과 환경관리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메트로폴리스는 당초 파리에 설립되었으나 1999년에 스페인으로 본부(사무국)를 이전하였다. 이러한 실례를 통해 국제기구의 이전가능성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전대상을 유치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 2008년에 메트로폴리스의 국제연수원 아시아 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아시아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환경, 전자정부 등에 관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아시아권 도시 공무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10개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 중 3, 4개만 국제연수원 측과 공동 개발하고 나머지는 자

체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메트로폴리스 이사회는 또 내년의 ‘여성 네트워크 포럼’을 서울에서 열고, 여성 네트워크 서울지역 사무소를 설치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이상의 성과를 통해 서울시가 메트로폴리스에 관련한 아시아지역 담당 국제기구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시아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급성장하여 선진국대열로 들어서고 있는 서울시의 발전을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인식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적네트워크의 구축 노력과 다양한 국제회의 및 행사를 유치하여 메트로폴리스에 관련한 아시아지역 전담 국제기구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장 국제기구 유치 실행계획

제1절 유엔대학 훈련센터 유치

제2절 동북아 지식정보센터 설립

제3절 제도적 시스템 구축

제6장 국제기구 유치계획

앞장에서 제시한 국제기구들이 서울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유치가능분야라고 한다면, 이 장에서는 지금부터 추진할 수 있는 유치계획으로 유엔대학 훈련센터의 하나인 GIST(Global Institute for Societal Transformation) 유치 및 동북아지식정보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제1절 유엔대학(UNU) 훈련센터 유치

1. 유엔대학의 역할 및 기능

유엔대학(UNU)은 1973년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유엔대학은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으로 캠퍼스나 학생이 있는 것은 아니며, 14개의 연구소 이외에 30개 이상의 국제연합기구 및 100개 이상의 세계적인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독자적인 연구·연수센터와 기존의 연구소에서 유엔대학과 협조·제휴하는 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나 후자가 중심이 된다.

설립목적은 평화·개발·복지 등 인류의 공통적 과제를 연구하는데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국제연합과 국제적 학문공동체 사이의 교량역할, 국제연합조직을 위한 두뇌집단 양성, 개발도상국의 지도자 역할을 들 수 있다.

연구주제는 평화, 관리, 발전, 과학 및 공업, 환경의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평화란 주제로 국제연합조직, 안전, 무장충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 관리란 주제로 인권, 윤리, 민주주의, 시민사회, 지도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세 번째, 발전이란 주제로 세계화 발전, 성장과 고용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네 번째 과학 및 공업이란 주제로 사회개혁, 정보와 바이오

테크놀러지, 소프트웨어 공학, 식량과 영양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이란 주제로 자원관리, 지속적인 산업화, 도시, 물, 기후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유엔대학 훈련센터 유치 필요성 및 배경

서울은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연구수행 장소로써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한때 권위주의였던 국가에서 번성하는 시민사회국가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주목할 만한 도시성장과 변화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사례라는 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서울이 글로벌 니치(Niche)로서 자리잡기 위해, 자체의 특이성들을 어떻게 자본화할 것이냐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에 소재하는 국제적 기관을 신설하여, 재무, 정치, 인적자원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자본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니치(Niche)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도시들과 국가들이 UN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뉴욕시 소재의 UN본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두드러진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파리에 소재하고 있는 UNESCO는 프랑스문화 자체에 대한 매혹적인 관심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프랑스가 글로벌환경에서 문화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수십 년 전에 설립되었고, 서울을 비롯한 다른 도시에서는 이와 같은 역할을 대체하여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서울의 글로벌환경에서 비용 효과적이며, 수평적 니치(Niche)를 정립하는 방법의 예로써 유엔대학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유엔대학의 연구 산하센터는 5개로 Helsinki, Yokohama, Reykjavik, Kuala, Accra에 하나씩 두고 있다. 이 센터들은 경제발전, 건강, 자연자원 등에 대한 연

구라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엔대학의 또 다른 센터를 서울에 새롭게 창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 기구명은 Global Institute for Social Transformation으로 사회의 변화 및 전환(Societal transformation)을 핵심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표 6-1> 국제연합대학 훈련센터 및 프로그램

Institution	Location	Focus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Helsinki, Finland	Development economics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Yokohama, Japan	Sustainable development
Geothermal Training Programme	Reykjavik, Iceland	Geothermal training
International Institute for Global Health	Kuala Lumpur, Malaysia	Global health
Institute for Natural Resources in Africa	Accra, Ghana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Global Institute for Societal Transformation	Seoul, Korea	Societal transformation

3. GIST 유치 계획

서울은 정치 및 사회 경제의 기능을 통합하고 있다는 이점을 살피 유엔대학 산하의 GIST(Global Institute for Societal Transformation)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에 GIST를 설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나타난다.

첫째, 동북아시아에 관련된 이슈에 중점을 두기 위해 중국, 일본 및 동북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의 연구진들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관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연구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전 세계 시민사회와 사회변화에 관련된 이슈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시아로 한정하였지만 변화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모습과 이에 대한 대처사례를 기본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수행이 가능하다.

셋째, 글로벌 환경에서 도시변형의 이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앞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하지만 도시라는 구체적인 범위로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어떻게 다양한 도시요소를 발전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향후 단계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GIST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기초적인 문서를 만드는 TF팀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서에 세부적으로 계획적인 목적, 그리고 결함력이 있는 조직 및 예산의 필요사항들을 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유엔대학 Director를 새로 임명하여, 그가 GIST와 다른 도시 및 국가에 있는 유엔대학 연구기관 및 센터들과의 협력에 대한 유무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제2절 동북아 지식정보센터 설립

1. 설립의 배경 및 필요성

지식기반산업의 특성은 일단 창출되거나 축적된 지식이 새로운 지식을 계속 증식시켜 전후방 부가가치를 연쇄 발생한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은 경제 각 부문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식의 신속한 전파와 확산을 촉진시켜 경제 전반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따라서 지식정보를 중심으로 한 전략이야말로 동북아지역에서 서울의 핵심경쟁력을 강화시킬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식 가운데도 동북아라는 지역에 관한 특수한 지식, 나아가 동북아지역 입장에서 동북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담긴 의도적 지식은 서울시가 특화할 수 있고 잘만하면 서울시에서만 공급가능한 지식이 된다. 이 점에 착안해서 서울시에 동북아지식정보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대학교 연구소에서

동북아지역을 연구할 뿐, 한·중·일 3국 연구진들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동북아 지역만을 다루고 동북아 지역 간 교류의 확대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연구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도 동북아관련 연구기관은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 더 많은데, 서양인의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미묘한 특성을 고려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이 동북아지식정보센터 역할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국가 및 도시경쟁력에 관한 여러 보고서의 결과에서 보듯 서울을 포함한 한국은 정보 및 지식산업에서 경쟁우위를 갖는다. 높은 R&D 수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 양질의 전문 인력 등 여러 면에서 한국은 동북아 지식허브로서 큰 잠재력을 가졌다. 지식허브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상당부분 구축해놓은 셈이다. 단지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

둘째,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 한·중·일 3국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한·중·일 3국을 연결하는 항공망은 서울~베이징~도쿄 시내를 연결하는 셔틀의 개념이 점차 자리잡고 있는데다가 장차 북한까지 포함한 육로교통망에서도 서울의 중심 위치는 단연 우위를 점한다.

셋째로 역사적인 당위성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한·중·일 3국 상호 간 역사분쟁은 동북아지역협력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지식을 공유하는 일이다. 특히 동북아지식정보센터가 지향하는 의도적 지역발전공유에 어떤 제한이나 마찰이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성원 모두에게 실용적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 간 역사분쟁을 우회할 가장 효과적 방안이다. 상호 간의 발전을 위한 지식의 공유에는 역사적 왜곡으로 인해 생기는 마찰이 불필요하다. 공생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상부상조하는 것은 바로 지식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2. 설립 전략 및 추진계획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성장 부문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일본과 이에 질세라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어디에 중점투자를 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이 바로 서울의 동북아 지식허브역할이다. 이때 지식은 앞서 언급했듯 단순한 지역관련 지식만이 아니라, 의도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동북아에서 스스로를 포함하여 주변지역의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정체성(Identity)과 관련된 지식을 일컫는다. 동북아에서 서울의 정체성과 주변 지역에서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알면 가장 적절한 투자 유치방식을 알게 되고, 위험과 기회도 직시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동남아와 중국에 관한 최고의 지역지식정보를 제공한다. 이 두 곳에 가면 가장 확실한 손익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결정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동북아지식정보센터는 세계 최고수준의 동북아 연구, 즉 세계 최고 수준의 동북아 정책을 발굴하여 동북아의 지식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동북아지식정보센터가 단순한 연구기관에만 그치지 않고 동북아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은 세계 석학들의 영입을 통한 인지도 확립이다. 따라서 설립 초기에 세계 최고수준의 학자들을 초빙하여 전체적인 위상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연구센터와 교류를 통하여 이들과 중흥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는 곧 국내의 연구인력으로 그 효과가 파급될 것이다.

인천공항이 세계 물류와 여행객의 착륙장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동북아지식정보센터는 세계 지식과 아이디어의 착륙장이 될 것이다. 동북아지식정보센터의 투자비용은 인천공항에 비해 수백분의 일도 안 되지만 투자수익률은 수백 배에 달할 것이다. 사람이나 물류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지식이나 아이디어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지식착륙장도 필요하다.

동북아 지식정보센터 출자와 운영방식은 한·중·일 3국 또는 대표 도시들이 공동출자하거나, 연구와 학위수여기능을 병행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전문적인 인적재원이 지속적으로 국제기구 인사들과 접촉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도시 시스템 구축이다.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언어문제, 교통문제, 정보제공시스템, 외국문화수용, 국내 아이덴티티 확립 등 장시간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언어문제의 경우 기초교육부터 시작해 문화화를 통해 외국인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통문제 또한 국내 교통 및 주변 국가 간 도시들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문제이다. 정보제공시스템 또한 외국 인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 및 데이터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해외인적자원이 유입될 수 있다.

셋째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다.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치부터 지원관리까지 이루어져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업, 시민 등이 모두 협력적으로 연계되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다양한 단체 및 조직이 국제기구 유치와 유치 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자연스럽게 갖추게 될 것이다.

넷째는 국제기구의 효율적 관리이다.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는 점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 이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제기구가 활발한 활동을 하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다양한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를 통하여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이는 국제기구 유치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직업훈련분야 국제기구 국내유치관정 조사 연구」, 팀 제훈련결과보고서, 2004.
- 김강녕, 「국제기구론」, 문우사, 1992.
- 김관옥, “국제기구 역할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 미국의 패권적 국제질서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2집 1호, 2004.
- 김세원,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제도적 접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김원배 외, 「베세토 비즈니스회랑 구축제안-동북아 교통망의 비전과 실천」, 국토연구원, 2007.
- 김원배,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김유은,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위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4집 4호, 2004.
- 김천홍, 「직업훈련분야 국제기구 유치과정 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2004.
- 김태운, “국제기구 형성과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6.
- 김혁황,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동북아 경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노영희, 「환경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 한국학술정보, 200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 경제협력 : 동북아개발은행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 물류허브 : 동북아 항공운송자유화 정책 추진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데일리NK, “북인권 위한 거국적 기구 창설하자”, 10월 29일, 김소열, 2008.
- 마가렛 P 칸스, 『국제기구의 이해』, 명인문화사, 2004.
- 박명립,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3중 중추, 가교 국가전략”, 『IT기반 미래국가발전전략연구』, 대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 박재영, 『국제기구 정치론』, 법문사, 2003.
- 법무부, 『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서울 : 법무부, 2007.
- 서승진, “국제기구유치를 통한 컨벤션산업의 발전”,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2008.
- 서승진, “컨벤션 산업 최근 동향과 특성변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2008.
- 서승진 외, 『컨벤션 산업론』, 세림출판사, 2007.
- 서창록, 『국제기구』, 다산출판사, 2004.
- 세계일보, “서울시 아시아공무원 교육 중심지로”, 10월 27일, 이귀전기자, 2008.
- 아시아투데이, “서울시, '씨티넷 교통전략 세미나' 개최”, 9월 7일, 인터넷부, 2008.
- 오윤정,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R&D실태분석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6.
- 이반베르니에,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 캐나다 퀘벡주 라발대학교 법과대학, 2002.
- 이원희·이강욱, “UNWTO ST-EP 재단의 사업 추진방향”,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 이현주, “충북의 발전방향 : UN반부패방지법에 따른 국제기구유치를 중심으로”,

- 충북개발연구, 2006.
- 임천순 외, “국제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활용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1999.
- 정정숙, 「국제기구를 통한 문화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개회현황”, 한국관광공사, 2000~2007.
- 한국관광공사의 「국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공사, 2006.
-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2007.
- 한국관광공사, “CONVENTIONS AND EXHIBITIONS IN KOREA 2007 to 2016”, 한국관광공사, 2008.
- 한국교육개발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한국고등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0.
- 한국소방안전신문, “국내 최초 UN 산하기구 탄생 APCICT 개소”, 4월 한만용기자, 2007.
- 한영주 외, 「BESTO 협력체계구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21세기 연구센터, 1995.
- 한영주 외, 「동북아지역에서 서울의 위상정립」,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 환경페이퍼,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동향”, 환경문제보고서, 2002.
- Heikkila, E. J., “Re-Inventing Korea“,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19(1), 27-45, 2005.
- Heikkila, E. J., “Positioning Seoul as a Global Node”, Unpublished page, 2008, 2008c.
- Ng, Mee Kam and Peter Hills, “World cities or great cities? A comparative

study of five Asian metropolises Cities", Vol. 20, No. 3, pp.151-165, 2003.

Oneda, Yosuke, "Air Transportation Network in North-east Asia : Vision and Issue", North-East Asia Grand Design Workshop, KRHIS, 2006.

〈인터넷 사이트〉

<http://www.kf.or.kr>(국제교류재단홈페이지)

<http://www.nabh.go.kr>(동북아시아위원회)

<http://www.seoul.go.kr>(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icice.or.kr>(인천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

<http://www.visitkorea.or.kr/intro.html>(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www.klafir.or.kr>(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영문요약(Abstract)

A Strategy to Attract the Headquarte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the City of Seoul

Yeong-Joo Hahn · Kang-Min Kim

Seoul is distinctive from a global perspective in at least three important respects : (i) it has the potential to emerge as a true center for the Northeast Asia region, (ii) it is an important example of how flourishing civil society can take root in what was an authoritarian state, and (iii) it is likewise an instructive example of remarkable urban growth and transformation. The question becomes one of how might Seoul capitalize on its unique to establish a global niche for itsel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unique institutions that are truly international in their orientation yet located in Seoul.

Implicit in this study is a notion of hierarchy of cities that are interconnected on the basis of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transactions. The study is to pursue a more demand-oriented approach through adaptation of a niche strategy. The key point made is that Seoul could be much more active in cultivating a meaningful regional identity, and doing so would in fact be the best means of establishing a strong global presence.

Two international institutions are recommended as a more recent and instructive example of how Seoul might seek to define and signal its horizontal niche in a global context in a cost-effective manner.

One is the Global Institute for Societal Transformation (GIST) under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The institute could be truly international in its composition and global in its breadth and engagement while using Seoul as its base of operations. It could work systematically build on each of the three distinctive qualities discussed above.

The other is Center for Northeast Asian Development Studies(CNADS). The proposed CNADS is intended to change the situation by stimulating world class research and related policy dialogues and knowledge dissemination regarding a broad array of contemporary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development through the Northeast Asian region.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Issues and Objectives
2. Scope, methods and Organization of Study

Chapter 2 Theoretical Discussion

1. Meaning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2. Effe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Chapter 3 Actual Conditions of Attrac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1. Actual Conditions in Major Foreign Regions & Their Implications
2. Korea's Actual Conditions in Attrac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 Their Implications

Chapter 4 Strategies of Attrac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1. Improvement of Conditions for Attraction
2. Increase in Charm of the City
3. Access Improvement
4. Securement of Human Resources

Chapter 5 Revitalization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1. Statu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and Actual Conditions
2. International Conference Plans to Be Held in Korea
3. Major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oul

Chapter 6 Plans to Attract International Organization

1. To Attract a Training Center of UN University
2. To Establish Center for Northeast Asian Development Studies
3. To Build an Institutional System

References

시정연 2008-PR-36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 전략

발행인 정문건

발행일 2008년 11월 21일

발행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5,000원 ISBN 978-89-8052-643-7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